

전통시대 생물분류체계와 관련 문헌자료 고찰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교수, 민속학 전공
kig110@aks.ac.kr

I. 머리말

II. 전통생물지식 관련 자료 범주와 구성

III. 조선시대 생물지식 문헌 개요와 생물분류체계 고찰

IV. 맺음말

I. 머리말

최근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표(2013. 2)됨에 따라 체계적인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커졌고, 2014년 10월 유엔의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생물유전 자원과 전통지식 이용에 관한 국제적 장벽이 형성됨과 아울러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간 경쟁 심화가 예견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¹⁾

이는 곧장 한반도 생태 기반의 전통생물 지식체계의 발굴과 관련 문헌자료의 분석 및 정보화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킨 시의성을 야기한다. 기존에 주로 연구된 한의학적 접근을 넘어서서 생물학 본연의 관점에서 전통생물학 체계의 수립과 다각적 연구를 요청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국제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전통생물자원지식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환으로, 우리 역사의 생물자원 전통지식 자료를 발굴하고, 그 생물지식 관련 문헌 범주의 수립과 거기에 담긴 전통생물 분류체계를 고찰하면서, 우리 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와 전통생물지식 기반을 제고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생물지식 연구는 생물학과 역사학, 곧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학제 간 융합연구를 필요로 하는 복합분야이고, 그 자료 형태가 한문으로 씌어진 고문헌 기반이어서 적어도 조선시대 박물학 내지 문물학 상황에 대한 안목이 없이는 자료 접근 자체가 난해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통시대 생물에 관한 분류와 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었고 그에 따른 자료 상황은 어떤지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없다시피하며, 이 문제를 융합학문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고대 중국의 자료까지 거슬러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들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전통생물학의 지식체계 골간을 이루는 생물분류학 측면에 대한 시론적 고찰을 다루고자 한다.

1) 이현우, 「생물자원 전통지식 관련 국내 정책대응 현황」(한국생태학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동심포지엄, 〈전통생태 연구의 현황과 전망〉 발표집, 2013.11.22) 및 이현우, 「생물자원 전통지식 전문가포럼 2013년 보고서」(2013.12.12).

II. 전통생물지식 관련 자료 범주와 구성

(1) 근대학문으로서의 생물학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 생물(生物)이란 말은 주로 천지가 만물을 생한다(天地生物)는 용법으로²⁾, 또는 천지간에 살아 있는 모든 존재(凡生於天地之間)를 뜻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며³⁾, 이를 지칭하는 말로 생물(生物), 군생(群生), 품물(品物), 물생(物生) 등이 보인다.

통칭적 생물 대신에 동물을 일컫는 전통용어로는 흔히 조수(鳥獸), 금수(禽獸) 또는 금수충어(禽獸蟲魚)로 합칭하여 불렀고, 상금서수(祥禽瑞獸)는 상서로운 날짐승과 들짐승을 수식하는 상투어이다. 동물을 분류하여 일컫는 말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오충(五蟲)이란 용어가 널리 쓰였다. 식물은 대개 초목(草木)이라 불렀고, 본초(本草)는 약용의 주재료가 식물인 것에 기대어 일컫는 말이며, 각기 중심으로 두는 관심에 따라 초목화훼(草木花卉), 과라소채(果蔬蔬菜) 등의 연용어도 쓰여왔다. 이렇게 생물이라는 말과 함께 초목금수(草木禽獸)로써 동식물을 포괄하는 용법이 빈번하였다.

2) 『동문선』 권77, 李詹(이침) 「養浩堂記」. “사람은 만물의 靈長이 되어,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마음을 가장 먼저 받은 존재이다. 또 사람과 물은 모두 움직이는 動物이다(水居五行之一, 得天地生成之數. 人爲萬物之靈, 首稟天地生物之心. 且人與水, 皆動物也. 同一浩然, 蓋其氣類也).”: 이 글의 문집 자료와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종합DB를 참고함. 이하 생략.

『점필재집』 문집 제2권 「환취정기(環翠亭記)」. “봄날이 화장하여 초목의 꽃이 활짝 핀 때에 이르러서는 천지가 생물(生物)하는 인(仁)을 느낀다(至若靑陽和暢. 草木敷榮. 則感乾坤生物之仁).”

3) 『청장관전서』 제56권 「양엽기(盎葉記)」 3 〈人命과 八字〉. “무릇 천지 사이에 생하는 것에 사람과 금수와 충어와 초목의 무리가 있다(凡生於天地之間者, 人禽蟲魚草木之倫).”

『목은집』 목은시고 제4권 〈晦日聞雨(그믐날 빗소리 듣다)〉에서 “중천 우대엔 구름 깃발과 안개 장막이 펼쳐지고(雲旗霧帳中天臺), 우사가 또한 비를 내려 먼지를 맑게 씻어내니(雨師亦復清塵埃), 하늘이 그를 위해 천둥 벽력 한 번 쳐서(天公爲之一笑開), 못 신들에 직무 주어 각기 일을 맡게 하면(群神授職各有司), 폐하지도 침범지도 않아 生物이 양육되네(不曠不侵生物孳)”라고 하여, 하늘(天公)이 군신(群神)들에게 각각 직무를 맡기어 생물(生物)을 길러낸다는 인식을 내보인다.

『삼봉집』 제8권 「教告文」 공양왕 원년(1389) 12월 29일조. “예악을 일으켜 功業을 찬양하는 것은 진실로 和氣가 만물을 휩싸고 혜택이 온갖 生物에 흡족하며, 안팎이 편안하고, 귀신과 사람이 모두 그 경사에 협찬하지 않으면 굳이 사양해야 할 것이니 누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겠는가?(予惟禮樂之興, 功業所著, 苟非和氣被於萬物, 惠澤決於群生, 中外乂安, 神人協慶, 固所讓也, 曷克當之).”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인식하였는가를 살펴보면, 18세기 말 정조(1752-1800) 임금의 중용강의를 하면서, “생물(生物)의 물(物)은 동물(動物)과 식물(植物)을 겸하여 말한 것”⁴⁾이라 하여 동물과 식물을 생물의 두 큰 범주로 인식하였고, 또한 정조는 “황충(蝗蟲)은 생물(生物)이나 그것의 발생과정이 기화(氣化)에 의한 것이어서 금수(禽獸)와는 다르다”⁵⁾고 하여, 동물발생학적인 언급을 하는 등 생물에 관한 상당히 흥미로운 인식을 내보인다.

생물 존재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살펴보면, 조선 초 문신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이 『춘정집』에서 “비잠 및 동식(飛潛暨動植)”⁶⁾이라 하여, ‘날거나 잠기는 동물과 식물’이 위대한 하늘의 조화 속에 생육된다는 말을 하였고,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청장관전서』에서 천지간에 생하는 존재를 “사람, 금수, 충어, 초목(人禽虫魚草木)”⁷⁾으로 말하였다. 19세기 실학자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물속의 동물을 수족(水族), 물의 동물을 육산(陸産)으로 말하였고, 다시 발생에 따라 태생(胎生), 난생(卵生), 습생(濕生), 화생(化生)의 네 종류로 나누고서, 태생동물은 눈꺼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눈이 감기고, 난생동물은 아래서 위로 감기며, 습생동물은 눈에꺼풀이 없어서 잠을 자지 않고, 화생동물은 눈에 구멍은 없으면서 빛이 난다고 구분하였

4) 『弘齋全書』 제83권 「經史講義」 17장 〈中庸 4〉. “생물(生物)의 물(物)은 본래 동물과 식물을 겸하여 말한 것인데 재자(栽者)의 재(栽) 자는 식물만으로 말한 것이니, 어째서 인가?(且生物之物, 本兼動植說, 而栽者之栽, 獨以植物言者何也).”

5) 『홍재전서』 제170권 「日得錄」 10 政事 5. 상이 이르기를, “소나무는 수목(樹木)이지만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많은데, 황충(蝗蟲)은 생물(生物)이지만 마치 농사에 명충(螟蟲)이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이 소나무에 해롭다. 게다가 그것의 발생은 기화(氣化)에 의한 것으로서 금수(禽獸)와는 다르니, 잡아서 물어버리는 정책이 의리에도 실로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긋날까 두려우니, 이로 인해 마음이 즐겁지는 않다” 하였다(松雖樹木, 利人也弘. 蝗雖生物, 如稼有螟. 且其生也氣化, 異於禽獸, 捨懲之政, 於義固然. 而猶恐差毫於天地生物之心, 爲之不怡).

6) 『春亭集』 제3권 〈得此字〉 시문. “위대하고 위대한 하늘의 도여, 설 새 없이 만물을 생성하고 있구나. [...] 날짐승과 물고기 및 동물이나 식물이 모두 다 크나큰 조화 속에 생육됐지(大哉維乾元, 生物自不已. 於皇我聖神, 至仁治遐邇. 飛潛暨動植, 並育洪勻裏).”

7) 『靑莊館全書』 제56권 「양엽기(盎葉記)」 3 〈人命과八字〉. “모든 천지 사이에 생하는 사람·금수(禽獸)·벌레·물고기(魚)·초목(草木) 등의 큰 수(大數)가 다 이 숫자의 관제(管制)를 받고 있다(榕村集, 李光地撰. 以六十年甲子, 乘十二月, 得七百二十. 以六十甲子, 乘十二時, 亦得七百二十. 又以年月七百二十, 乘日時七百二十, 得五十一萬八千四百. 則凡生於天地之間者, 人禽虫魚草木之倫, 其大數, 皆管於是矣).”

다.⁸⁾ 동물의 종류에 따라 눈동자의 감고 뜨는 형태를 분석한 것이다.

19세기 후반 실학자 최한기(崔漢綺, 1803-1877)는 습생 대신에 식물을 넣은 “태생, 난생, 화생, 식물의 사생물(四生物)” 분류를 언급하고 있다.⁹⁾

식물은 지각(知覺)이 없다는 비유가 조선 중기 문신 장유(張維, 1587-1638)의 『계곡선생집』 제4권 〈풍죽설증최자겸(風竹說贈崔子謙)〉에 보이는데, “감응하는 묘리는 삼재에 공통된 것이나, 천과 인은 다른데 有心과 無心の 차이 때문이다. […] 식물은 지각이 없고, 감촉이 되면 반응할 뿐 거기에 사감의 요소는 없다(感應之妙, 通乎三才, 何天人異, 有心無心. […] 植物無知, 亦天地類, 因觸而動, 已無私焉)”고 논술하였다.

한편 갑신정변의 수습을 위해 1884년(고종 21)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간 일본기행을 기록한 박대양(朴戴陽, ?-?)의 『동사만록(東槎漫錄)』 고종 22년(1885) 1월 12일조에는 일본 도쿄 요코하마(橫濱)에 있는 ‘동물관(動物館)’ 건문 기록을 담고 있다.¹⁰⁾ 이에 따르면, 정사(正使)와 함께 박물관(博物館)에 들렀다가 인근에 있는 동물관(動物館)에 들렀는데, 물고기를 유리벽 속에 가두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안쪽의 각 행각(行閣)마다 짐승으로 원숭이·곰·사슴·토끼·고양이·개·여우·삽·족제비·산돼지·물소가 있고, 새로운 학·공작·독수리·솔개·물오리·기러기·부엉이·올빼미·닭·꿩이 있으며, 그 밖의 빗갈 고운 날개를 가진 새와 기이한 것을 가진 새를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음을 기록하였다. 근대적 동물원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새로운 광경에 흥미로운 충격을 받았음에도 이런 것은 나라를 위한 급선무가 아니며, 왕의 마음이 점점 호탕해지고 민생이 더욱 곤궁해지는 결과를 나올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체로 동물과 식물을 생물의 주요 두 범주로 인식하고

8) 『오주연문장전산고』 인사편 1 「신형(身形)」 〈안동각용변증설(眼瞳各用辨證說)〉.

9) 『氣測體義』 「推測錄」 제6권 「推物測事」 〈取物生養〉. “胎卵植植, 四生之物.”

10) 『동사만록』 을유년(1885) 1월 12일조. “乃動物館, 卽鳥獸園也. 入其門, 左壁上烟波漣漪, 游魚沈浮. 余初疑之以爲活畫, 乃諦視之, 以琉璃爲壁, 壁間貯水, 上覆鐵網, 使之通明也. 步步深入, 行閣列立. 閣內, 獸有猴熊鹿兔貓犬狐狸鼬野豬水牛, 禽有鶴孔雀鷺鳶鳧雁鴿鷓鴣鷄雉, 其餘彩羽奇翎, 不可枚數. 而山禽野獸, 皆置屋內, 內有鐵網, 外有木欄, 深鎖之. 凡屬水鳥, 穿一大池, 池邊立鐵柵, 上覆鐵網, 使不得飛去. 余問迎接人曰, 作此館而儲此物, 今爲幾年, 答云十年間事. 余乃心語曰, 日本開國數三千年, 必有賢辟良佐鳴其間矣, 曾未有此, 近自開化以來, 汲汲營造, 鳩聚遐邇工作物種, 其費幾何, 使博物者觀之, 或有取焉, 終非今日天下爲國急務宜, 乎君心漸蕩, 民生愈困, 而猶欲妄自夸大, 傲視隣國, 不滿一哂也.”

있으며, 동물은 좀 더 세분하여 사람, 금수, 층어로 나누는 인식이 일반적임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인식은 개략적인 면모이며, 전통시대 사람들이 구체적인 생물분류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다음의 자료를 통해 읽을 수 있다.

(2) 전통생물지식을 수록한 자료 범주는 구성과 성격에 따라 나누면, ① 문물백과전서 성격의 류서류(類書類) 문헌과 ② 의약학적 관점에 의거한 본초류(本草類) 문헌 및 ③ 농사 작법을 위한 농서류(農書類) 문헌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때 류서류는 문물전장제도에 관한 백과적 지식을 주제별로 분류한 문헌이라는 뜻이며, 본초류는 한의학서 관련 자료로서 약용적 관점에서 동식물과 광물 등을 망라하여 설명한 문헌이며, 농서류는 농작물 재배를 위해 곡식류와 과일류, 채소류, 우마류 등을 설정하여 설명한 자료물이다. 조선시대에 생성된 문헌 중에서 이상 세 갈래에 해당하는 자료가 100여 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¹¹⁾, 서로 중복된 면도 있으나 각기 서술의 방향이 달라서 함께 참조하여 전통시대 생물분류에 관한 체계를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내학계가 아직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관계로 그 논의의 기준을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어서 향후 몇 가지 연구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통생물지식 관련 3대 문헌류에 대한 범주별 개괄을 시도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글번역이 되지 않은 자료가 훨씬 많아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 추후 번역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작업은 그 자체가 방대하여 중장기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작업편의상 비교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문헌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전통시대 생물지식의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전통시대의 생물 인식체계를 밝힌다.

셋째, 일정한 생물분류체계하에 전통생물 종을 일일이 목록화하고, 나아가 현대 생물분류학과 소통하는 내용의 해석과 정의(definition)를 확립하는 작업으로 나아간다. 현재 통일되지 않은 전통생물지식의 각개적

11) 김일권, 「조선시대 민속문화 관련 류서류 편찬물 현황과 특성」, 『역사민속학』 제32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3); 김일권, 「조선시대 기상점후 류서류와 기상자연학적 고찰」, 『중앙사론』 제38집(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3. 12).

유통으로 말미암아 학문적 비전문성과 사회적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다.

넷째, 전통시대 문헌의 특성상 매뉴얼적 지식이 다분하기도 하므로, 경험관찰적 지식이 비교적 많이 수록된 농서류와 동의보감류 문헌에 대한 심화 분석을 가미한다.

다섯째, 분류틀이 복잡한 관계로 자료가 비교적 많이 생성된 전통식물 분류법 문제를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전통동물분류법 문제는 후순위로 돌려 연구의 단계적 접근을 꾀한다.

여섯째, 한자어 용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해당 식물의 규명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가능한 대로 전통시대 도해류 자료를 병행적으로 개발하여 시각적 분석을 도모한다.

일곱째, 다른 한편으로 조선시대 생물지식의 분류와 내용은 대개 중국의 문헌에 기댄 바가 많은 관계로 중국의 류서류, 본초류, 농서류 등에 대한 개괄과 분석작업도 함께 수행한다.

여덟째, 이상의 연구는 자료특성상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적 연구가 바람직하며, 이에 관한 다양한 협의와 연구방법론을 개발한다.

(3) 다음으로 전통생물지식 관련 자료가 대부분 한문 자료인 관계로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의 자료 상황을 동시에 이해하고 그 내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생물분류법 중심으로 이를 대략 살펴본다.

첫째, 전통시대에서 생물 관련 항목과 자료를 열거하고 체계적 설명을 가하는 시도는 만물학의 자료보고라 이를 수 있는 류서류 문헌이 먼저 주목된다.

시대별로 대략 살펴보면, 앞선 시기의 자료로 당나라 구양순(歐陽詢, 557-641)이 봉칙찬한 『예문류취(藝文類聚)』(624) 100권은 「천부(天部)」에서 「재이부(災異部)」까지 48부 727목으로 만물을 분류 집성한 문헌인데, 여기에 초부(草部), 백곡부(百穀部), 과부(果部), 목부(木部), 조부(鳥部), 수부(獸部), 인개부(鱗介部), 충치부(蟲豸部)로 부문(部門)을 세워 각종 동식물의 생물종을 다루었다. 편의상 이들을 통칭하여 「생물문(生物門)」이라 지칭할 만하고, 때로 식물 관련은 「식물문(植物門)」으로, 동물 관련은 「동물문(動物門)」 등으로 치환하여 부를 만하다.¹²⁾

12) 여기서 말하는 「생물문」, 「식물문」, 「동물문」의 ‘門’은 현대 생물분류법에 나오는 종속 과목강문계의 門(phylum)과는 다르며, 類書類적 전통문헌에서 文物·典章·制度의 각

다음 송나라 류서류로는 남송 정초(鄭樵, 1104-1162)가 찬집한 『통지(通志)』(1161) 200권의 「이십략(二十略)」 중 제20 「초목곤총략」에서 초목류와 곤총류로 동식물을 대별하여 서술한 것이 주목된다.

이상 외에 한당대에서 명청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종의 류서류가 발달하였으며, 분량이 매우 거질인 특성을 보여 분석하기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까닭에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다음 농서류 문헌은 고려시대 말에 도입되어 조선말까지 농정에 크게 영향을 끼친 원나라 대사농사(大司農司) 편찬의 『농상집요(農桑輯要)』(1273)가 주목된다. 이 책은 원으로 사행사로 다녀온 행촌 이암(李昉, 1297-1364)이 가져왔고 1372년(공민왕 21)에는 중간(重刊)하였고 조선 후기까지 널리 읽히고 인용빈도가 매우 높았던 책이어서 고찰의 중요성이 크다. 여기에 생물 자료가 구곡(九穀) 및 과채(瓜菜), 과실(果實), 죽목(竹木), 약초(藥草), 금어(禽魚) 항목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다음 명나라 서광계(徐光啓, 1562-1633)의 『농정전서(農政全書)』(1639) 60권 역시 조선 후기에 도입되어 널리 읽히고 활용된 자료로 주목된다. 이중에 곡부(穀部), 라부(蠶部), 소부(蔬部), 과부(果部), 초부(草部), 목부(木部)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상은 고려와 조선에 널리 읽힌 자료의 일부이며, 작물과 목양 위주의 생물지식을 수록한 농서류 문헌 역시 방대하고 거질의 분량을 가진 관계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음 의약학에 관련한 본초류 문헌 역시 전통시대 생물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서 본초(本草)는 약용재료의 대부분이 식물인 까닭에 식물 위주를 지칭하는 용어이나, 실제 수록된 내용은 초류(草類) 외에 광물(鑛物)까지 약물로 포괄되어 있다.

본초의 분류를 대략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최초의 본초서로 알려진 『신농본초경』은 상품(上品)·중품(中品)·하품(下品)의 체제를 세웠고, 가장 유명한 명나라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의 『본초강목(本草綱目)』(1578년 완성, 1590년 간행) 52권 37책은 16부 60류 체제를 제시하였고, 생물 관련 류문(類門)이 수부(水部)·화부(火部)·토부(土部)·금석부(金

방면을 분류할 때 붙이는 편장의 분류체제를 일컫는다. 각 문헌에 따라 편장 명칭을 志, 篇, 部, 門, 典, 考 등으로 다양하게 붙였다. 향후 전통생물분류 문제가 심화되는 과정에 따라 현대 분류법인 植物界, 動物界 등의 명칭법을 참조할 만하다.

石部) · 초부(草部) · 곡부(穀部) · 채부(菜部) · 과부(果部) · 목부(木部) · 복기부(服器部) · 충부(蟲部) · 린부(鱗部) · 개부(介部) · 금부(禽部) · 수부(獸部) · 인부(人部)로 수립되어 있다.

이보다 불과 20년 뒤에 나온 조선 중기 허준(許浚, 1546-1615)의 『동의보감(東醫寶鑑)』(1610년 완성, 1613년 간행) 25권 25책 역시 『본초강목』과 비슷한 분류법을 보이며, 수부(水部) · 토부(土部) · 곡부(穀部) · 인부(人部) · 금부(禽部) · 수부(獸部) · 어부(魚部) · 충부(蟲部) · 과부(果部) · 채부(菜部) · 초부(草部) · 목부(木部) · 옥부(玉部) · 석부(石部) · 금부(金部)의 15부 1,404항으로 편제하였다. 『본초강목』과 부명(部名) 체제가 유사하지만, 하위에 분속된 항목명에는 편차를 보여 상세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다음 청나라 오의락(吳儀洛, 1704-1766)의 『본초종신(本草從新)』(1757) 18권은 『본초강목』에 수록되지 않은 약물을 보충한 책이며, 생태 특성에 기반한 16부 49류 편제를 수록하였는데, 『본초강목』을 토대로 초부(草部) · 목부(木部) · 과부(果部) · 채부(菜部) · 곡부(穀部) · 금석부(金石部) · 수부(水部) · 화부(火部) · 토부(土部) · 금부(禽部) · 수부(獸部) · 충부(蟲部) · 어부(魚部) · 린부(鱗部) · 개부(介部) · 인부(人部)의 16부 705종을 분류하였다.

이상은 전통생물 관련 3대 문헌 범주에 따라 중국 자료 상황을 살펴본 것인데, 본초류 문헌은 약용 위주의 서술을 꾀하였고, 농서류 문헌은 농사 재배 위주의 작물류 식물 서술에 주력하였으며, 류서류 문헌은 만물학의 관점을 지향하여 동식물의 전체적 분류에 관심을 보인다. 곧, 앞의 둘은 식물문 위주의 분류자료이고, 류서류는 동식물을 함께 다룬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상호 비교하고 교차하여 분석함으로써 전통시대 생물분류학의 체계와 목록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Ⅲ. 조선시대 생물지식 문헌 개요와 생물분류체계 고찰

1. 조선시대 생물지식 관련 자료 개요

조선시대에 생성된 주요 류서류와 농서류 및 본초류 문헌을 살펴보면서 각기에 수록된 생물분류 문제를 검토한다. 다음은 전통생물지식을 비교적 잘 담고 있다고 보이는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의 문헌을 선별한 내역이다.

1. 선조조 오명리(생물미상)의 『고급설원』(1594) 10권 10책: 초목(草木), 조수(鳥獸), 충어(蟲魚)
2. 허준(1546-1615)의 『동의보감』(1610) 25권 25책: 곡부(穀部), 금부(禽部), 수부(獸部), 어부(魚部), 충부(蟲部), 과부(果部), 채부(菜部), 초부(草部), 목부(木部)
3. 이수광(1563-1628)의 『지봉유설』(1614) 20권 10책: 제24 휘목부(井木部), 제25 금수부(禽獸部)
4. 김육(1580-1658)의 『유원총보』(1643) 47권 30책: 제22 미곡문(米穀門, 권38), 제23 초목문(草木門, 권39-40), 제24 조수문(鳥獸門, 권41-44), 제25 충어문(蟲魚門, 권45-46)
5. 김진(1585-?)의 『신편휘어』(1653) 59권 20책: 제4 만물문, 백금(百禽), 백수(百獸), 인충(鱗蟲)
6. 박세당(1629-1703)의 『색경』(1676) 2권 2책: 종곡류(種穀類), 초목류(草木類), 조수류(鳥獸類) 등
7. 홍만선(1643-1715)의 『산림경제』(1718) 4권 4책: 치농문(治農門), 치포문(治圃門), 종수문(種樹門), 양화문(養花門), 양잠문(養蠶門), 목양문(牧養門), 구황문(救荒門)
8. 이익(1681-1763)의 『성호사설』(1760) 30권 30책: 17 금수문(禽獸門), 18 초목문(草木門)
9. 류중임(1705-1771)의 『증보산림경제』(1766) 16권 12책: 양화편, 치포현, 구황편
10. 서명응(1716-1787)의 『농정본사』(1787) 12권 6책: 곡류 8본기, 채과류 10세가, 초목류 16열전

11. 서호수(1736-1799)의 『해동농서』(1798) 8권 12책: 과류(瓜類), 채류(菜類), 과류(果類), 목류(木類), 초류(草類)
12. 서유구(1764-1845)의 『임원경제지』(1827) 113권 52책: 본리지, 관휴지, 예원지, 만학지, 전어지, 인제지
13. 최한기(1803-1877)의 『농정회요』(1830) 10책: 제1책 일실, 제2책 토의, 제3책 특용작물 40여 종, 벼 34개 품종, 제4책 원예작물 농여, 제5책 채소원예작물 40여 종, 과수 20종, 제6책 과류, 소나무 14종, 특용작물과 약용식물, 제7책 섬유작물과 양잠, 제8책 축산, 양봉, 물고기, 학 등 농목편, 제9책 식품 죽류 40여 종, 떡류 50여 종, 면류 5종, 다당류 11종 등, 채소 나물 40종, 유지작물 10여 종, 제10책 주류 25종, 육선 16종, 어품 15종, 치식의, 식기, 구황 등
14. 실명씨의 『농정서』(1850년 전후) 5권 5책: 수예(樹藝), 곡부상(穀部上), 곡부하(穀部下), 라부(藪部), 과부(果部), 종식상(種植上)
15. 이규경(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1856) 60권 60책: 초목부(草木部), 어충부(魚蟲部), 조수부(鳥獸部)
16. 조재삼(1808-1866)의 『송남잡지』(1855) 7권 14책: 초목류(草木類), 충수류(蟲獸類) 어조류(魚鳥類)

이상은 생물분류학 관련 자료로 주목되는 몇 가지를 열거한 것이며, 이보다 더 많은 자료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중에는 필사본 상태로 있어 원문 판독조차 난해한 자료가 많은 바, 작업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농서류 문헌은 분류방식이 류서류와 달라 분석의 관점 수립에 애로점이 크다. 그럼에도 이상 자료 중 류서류, 본초류, 농서류에서 대표로 하나씩 추출하여 아래에 우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통시대 생물자원의 분류체계와 방식을 살펴본다. 본고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물명고류 등 여러 장르의 문헌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접근하고자 한다.

2. 류서류 『유원총보』의 전통생물 분류체계

전통시대 자료 중에서 동물과 식물을 함께 다룬 것으로 가장 먼저 주목되는 문헌은 잠곡(潛谷) 김육(金堉, 1580-1658)의 『유원총보(類苑叢

寶)』(1643) 47권 30책이다. 이 책은 40년 간격으로 발발한 왜란(1592, 1597)과 호란(1627, 1636)으로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문물이 크게 망실된 상황에서 조선 사회의 새로운 질서 모색을 위해 동지사(1636)로 명나라 연경을 다녀오는 등 선진문물의 수급을 고심하던 인조조 문신 김육이 방대한 분량의 47권 30책으로 엮은 양란 직후 조선 최초의 거질 류서물이다. 그 서문에서 수십 년 이래의 병란으로 막대한 서책이 소실되고 천금을 주고 사 오던 연경으로의 시장길마저 끊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의 집성과 보급 필요성을 느껴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는 편찬 동기를 피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원총보』는 조선 중후기 조선 지식인에게 문물학에 관한 제반 지식체계를 공급한 의의가 높다.

사실 이 『유원총보』 이전의 자료물 중에서 각종 문물학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동식물에 관한 생물지식을 이만큼 정리하여 제시한 문헌은 없다시피하다.¹³⁾ 이런 점에서 여기에 구축한 동식물의 분류 내용은 전통시대 지식인들이 가졌던 지식체계의 일반 범주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 주목된다.

그 내역을 보면, 전체 25문 47권 구성 중에서 「생물문」으로 포괄되는 것은 제22 「미곡문」(권38)과 제23 「초목문」(권39-40), 제24 「조수문」(권41-44), 제25 「충어문」(권45-46)의 4문이다. 류문에 따른 각 권별 수록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22 米穀門(미곡문) (10항)

: 권38 穀(곡) · 禾(화) · 黍(서) · 粟(속) · 稷(직) · 豆(두) · 麥(맥) · 米(미) · 麻(마) · 蔬菜(소채)

제23 草木門(초목문) (40항)

13) 문물백과를 망라한 지식 집대성 작업물을 류서류 문헌이라 일컫는데, 조선 최초의 류서물을 이수광(1563-1628)의 『지봉유설』(1614)에서 찾은 것이 학계의 일반 통설이다(안대희,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조선 후기 물명고증학의 전통」, 『진단학보』 98호, 2004). 그런데 『지봉유설』은 저작 처음에 분류명을 세우고 저술한 諸志類(제지류) 문헌이 아니라 관련 항목을 나중에 적당한 류문명으로 재분류한 것이어서 지식의 체계성을 겨냥한 책이 아니다. 『지봉유설』 권20에서 제24 「훼목부(井木部)」 아래 화(花) · 초(草) · 죽(竹) · 목(木)의 4항과 제25 「금충부(禽蟲部)」 아래 조(鳥) · 수(獸) · 인개(鱗介) · 충치(蟲多)의 4항 정도만 수록한 것은 그러한 비제지류 특성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처음부터 류문명을 세워 저술한 『유원총보』를 최초의 제지류 류서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일권, 「조선시대 飲食門 류서류와 음식생태학」(『김치와 김장문화의 인문학적 이해』, 세계김치연구소, 2013. 12)에서 제지류 류서물의 특성과 중요성을 논하였다.

: 권39 芝(지) · 蘭(난) · 菊(국) · 瓜(과) · 蔗(자) · 菖蒲(창포) · 萍(평) · 芋(우) · 芭蕉(파초) · 芙蓉(부귀) · 菱(릉) · 苔(태) · 雜草(잡초) · 藥草(약초)
 /권40 松(송) · 桂(계) · 栢(백) · 桑(상) · 槐(괴) · 柿楓(시풍) · 檜(회) · 梧桐(오동) · 楊柳(양류) · 竹(죽) · 梅(매) · 櫻桃(앵도) · 桃(도) · 李柰(이내) · 石榴(석류) · 枸杞(구기) · 海棠(해당) · 棗(조) · 梨(리) · 栗(을) · 橘柑(귤감) · 荔枝(여지) · 葡萄(포도) · 牡丹(모란) · 芍藥(작약) · 衆木(중목)

제24 鳥獸門(조수문) (53항)

: 권41 鳥(조) · 鳳(봉) · 翡翠(비취) · 鸞(란) · 鶴(학) · 孔雀(공작) · 鴻雁(홍안) · 鵝(아) · 鴨(압) · 鷄(계) · 雉(치) · 鷗(구)
 /권42 杜鵑(두견) · 燕(연) · 雀(작) · 鷹(웅) · 鶴(요) · 鸚鵡(앵무) · 鸛鶴(관육) · 烏(오) · 鵲(작) · 鴿(합) · 鳩(구) · 鶯(앵) · 鴛鴦(원앙) · 秦吉了(진길료) · [布穀](포곡) · 諸禽(제금)
 /권43 麒麟(기린) · 騶虞(추우) · 獅[子](사자) · 犀(서) · 象(상) · [兕](시) · 虎(호) · 熊(웅) · 鹿(녹) · 猿猴(원후) · 狐狸(호리) · 豺狼(시랑) · 獬(달) · 馬(마)
 /권44 牛(우) · 羊(양) · 狗(구) · 豕(시) · 驢驘(려루) · 猫(묘) · 鼠(서) · 駱駝(낙타) · 兔(토) · 貂(조) · 群獸(군수)

제25 蟲魚門(충어문) (31항)

: 권45 龍(용) · 龜(귀) · 魚(어) · [鼈](원) · 鼈(벌) · 蟹(해) · 蚌蛤(방합) · 螺(라) · 蝦(하)
 /권46 蟬(선) · 蜂(봉) · 蟻(의) · 螢(형) · 蠟(랍) · 蚊(문) · 蜘蛛(지주) · 蝦蟆(하마) · 蛙(와) · 蟋蟀(실슬) · 蝗(황) · 蝶(접) · 蠅(강랑) · 螻蛄(당당) · 蜻蛉(청연) · 蚯蚓(구인) · 蝙蝠(편복) · 蚤(조) · 蠹(두) · 蛇(사) · 昆蟲(곤충) · [諸蟲](제충)

현대 분류법상 식물에 대한 항목은 「미곡문」과 「초목문」으로 나누었는데, 「미곡문」을 따로 분류한 것은 농업기반의 전통사회가 곡류를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이라 생각되고, 「초목문」에는 난초 · 국화 등의 관상식물 · 소나무 · 잣나무 등의 교목식물, 복숭아 · 포도 등의 과일식물, 구기 · 작약 등의 약용식물 등이 섞여 수록되어 있다(표1).

다음 동물에 대한 것은 「조수문」과 「충어문」으로 나누었다. 「조수문」은 제명 그대로 조류(鳥類)와 수류(獸類)에 대한 총칭이며, 봉황 · 난새 · 공작 · 기러기 등 조류 28종과 기린 · 사자 · 호랑이 등 수류 25종을 수록하였다. 「충어문」은 벌레류와 물고기류를 모은 곳으로, 전설상의 용을 비롯하여 거북 · 자라 · 게 · 조개 · 매미 · 벌 · 개미 · 개구리 등 31종을

수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충(蟲)과 어(魚)는 현대적 의미의 벌레와 물고기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고대로부터 동물 전체를 일컬을 때 충(蟲) 글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충(蟲)에 관해서는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 확장된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잘 볼 수 있는 자료가 진시황의 통일제국 건립에 이념서 역할을 하였던 『여씨춘추』 「십이기」에서이며, 여기에는 동물류를 지칭하는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곧 당시 막 개발된 오행사상에 따라 비늘 있는 인충(鱗蟲)은 동방과 봄철의 대표 동물로 삼았고, 깃 있는 우충(羽蟲)은 남방과 여름철, 털 있는 모충(毛蟲)은 서방과 가을철, 껍질 있는 개충(介蟲)은 북방과 겨울철의 동물로 삼았으며, 마지막으로 벌거벗은 나충(裸蟲)은 중앙과 계하(季夏, 늦여름)의 대표 동물로 삼았다.¹⁴⁾ 여기에 제시된 인충, 우충, 모충, 개충, 나충은 공간과 계절에 속하는 모든 동물을 망라한 의미를 지니며, 합칭하여 오충설(五蟲說)이라 일컫게 된다.¹⁵⁾ 이 오행적 오충설 이론이 『예기』 「월령편」에 동일하게 그대로 수록되었고, 『예기』는 유가의 5경 중 하나로 중시된 것이었다. 또 현대에는 오경박사(五經博士)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예기』의 오충설 인식이 동아시아 사회 전반으로 전승되어 일반적 생물인식체계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달리 진한시대 예설(禮說)을 모은 『대대례기』 「역본명」에는 우충(羽蟲) 360종의 수장으로 봉황(鳳凰)을 제시하였고, 모충(毛蟲) 360종의 수장은 기린(麒麟)으로, 갑충(甲蟲, 介蟲의 다른 말)의 수장은 신구(神龜), 린충(鱗蟲) 360종의 수장은 교룡(蛟龍), 나충(裸蟲) 360종의 수장은 성인(聖人)으로 삼는다는 이론을 수록하면서, “이것이 건곤 사이에 생겨난 아름다운 무리들이며, 금수만물의 숫자이다”¹⁶⁾라 하였다. 말하자면 이들 오충이 천지 사이에 생겨난 모든 동물의 총칭임을 언명한 대목이며, 교룡, 봉황, 기린, 신구, 성인을 각 오충의 대표자로 내세운 것이다.

14) 陳奇猷 校釋, 『呂氏春秋校釋』(上海: 學林出版社, 1984).

15) 김일권, 「四神圖 형식의 성립과정과 漢代의 天文星宿圖 고찰-고구려 벽화의 천문세계 관 이해와 관련하여」, 『고구려연구』 11집(고구려연구회, 2001. 7); 김일권, 『동양천문 사상 하늘의 역사』(예문서원, 2007) 재수록.

16) “故曰, 有羽之蟲 三百六十 而鳳皇爲之長. 有毛之蟲 三百六十 而麒麟爲之長. 有甲之蟲 三百六十 而神龜爲之長. 有鱗之蟲 三百六十 而蛟龍爲之長. 裸之蟲 三百六十 而聖人爲之長. 此乾坤之美類, 禽獸萬物之數也”(『大戴禮記·易本命』). 高明 註釋, 『大戴禮記今註今譯』(臺灣: 商務印書館, 1993年 修訂版), 523쪽.

표1-『유원총보』 「생물문」 구성과 항목

	류문명	권차	항목	134항	
제22	米穀門	권38	穀 禾 黍 粟 稷 豆 麥 米 麻 蔬菜	10	10
제23	草木門	권39	芝 蘭 菊 瓜 蔗 菖蒲 萍 芋 芭蕉 芙蕖 菱 苔 雜草 藥草	14	40
		권40	松 桂 栢 桑 槐 柿 楓 檜 梧桐 楊柳 竹 梅 櫻桃 桃 李 奈 石榴 枸杞 海棠 棗 梨 栗 橘 柑 荔 支 葡萄 牧丹 芍藥 衆木	26	
제24	鳥獸門	권41	鳥 鳳 翡翠 鸞 鶴 孔雀 鴻雁 鵝 鴨 鷄 雉 鷗	12	53
		권42	杜鵑 燕 雀 鷹 鶴 鸚鵡 鸕 鶒 烏 鵲 鴿 鳩 鶯 鷺 鸞 素吉了 (布穀) 諸禽	16	
		권43	麒麟 騶虞 獅(子) 犀 象(兕) 虎 熊 鹿 猿 猴 狐狸 豺 狼 獺 馬	14	
		권44	牛 羊 狗 豕 驢 驘 猫 鼠 駱 駝 兔 貂 群獸	11	
제25	蟲魚門	권45	龍 龜 魚(鱉) 鼈 蟹 蚌 蛤 螺 蝦	9	31
		권46	蟬 蜂 蟻 螢 蠅 蚊 蜘蛛 蝦 蟆 蛙 蟋 蟀 蝗 蝶 蛻 螻 螳 螂 蜻 蜓 蚯 蚓 蝠 蝠 蚤 蠹 蛇 昆 蟲 [諸蟲]	22	

여기서 나충은 피부만 있는 인간을 지칭하며, 오방위 중 으뜸인 중앙토(中央土)의 기운을 받은 만물의 영장(靈長)임을 인간의 대표인 성인을 내세움으로써 표방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유원총보』의 「조수문」 중에는 한반도에 서식하지 않는 사자, 물소, 코끼리, 낙타 등까지 수록하였고, 용과 봉황처럼 상상의 동물까지 망라하였으며, 「초목문」 중의 여지(荔支, *Litchi chinensis*) 식물은 남중국이나 인도지나반도 등에서 자라는 열대과일식물이어서, 『유원총보』가 한반도 자생식물과 서식동물만 서술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는 김육이 『유원총보』를 편찬할 때, 지난 날 자취를 살피는 데에는 송나라 축목(祝穆)이 찬한 『사문류취(事文類聚)』 만한 것이 없다면서 이를 요체로 삼았다고 언급하였듯이, 내용의 대부분은 중국적 생태지형에서 취급된 생물인식이기도 하다.

『사문류취』는 주자에게 수학한 남송 유학자 축목(祝穆, ?-1255)이 당나라 구양순(歐陽詢)의 『예문류취(藝文類聚)』와 서견(徐堅)의 『초학기(初學記)』 체제를 준용하여 천도(天道), 천시(天時), 계계(帝系), 인도(人道) 등 13부로 편찬한 170권 분량의 류서이다. 당초 축목은 전집(前集) 60권, 후집(後集) 50권, 속집(續集) 28권, 별집(別集) 32권을 합한 170권본을 편찬하였고, 여기에 누락된 직관류(職官類) 등을 원나라 부대용(富大用)이

신집(新集) 36권과 외집(外集) 15권으로, 다시 원나라 축연(祝淵)이 유집(遺集) 15권으로 보충하였다. 이에 최종 편집된 『사문류취』는 236권의 거질 류서물이 되었으며, 부(部)-목(目)-항(項)의 체계를 따라 총 74부 1,003목으로 편재하였고, 시기상 남송에서 시작되었지만 완성하여 배포된 것은 원나라 시기여서 원나라의 대표적 류서류로 널리 읽힌 바가 되었다.

인조조 김육이 바로 이러한 『사문류취』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여 그에 기반한 『유원총보』를 엮었던 것이다. 향후 『유원총보』가 지닌 생물학적 서술 내용을 분석하고 그 분류 특성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사문류취』의 것과 정밀 대조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며, 번역되지 않은 두 문헌을 함께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 그러함에도 조선시대 처음으로 전통생물체계를 집성하고 선보인 자료여서 그 연구의 의의는 높다 하겠다.

3. 본초류 『동의보감』의 전통생물 분류체계

다음으로 허준(許浚, 1546-1615)의 『동의보감(東醫寶鑑)』(1610년 완성, 1613년 간행) 25권 25책에 수록된 본초류(本草類)적 분류방식과 내용을 참고할 만하다. 이 책은 의약서가 목적인 까닭에 약용 관점에서 항목을 개발하고 제출한 것이어서 생물분류체계로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그 방대한 분량과 자세한 내역은 크게 주목되는 바이다.

『동의보감』은 수부(水部)·토부(土部)·곡부(穀部)·인부(人部)·금부(禽部)·수부(獸部)·어부(魚部)·충부(蟲部)·과부(果部)·채부(菜部)·초부(草部)·목부(木部)·옥부(玉部)·석부(石部)·금부(金部)에 대한 15부 1,404항을 수록하였고, 이 중 「식물문」이라 할 만한 것이 「곡부」 106항과 「과부(果部)」 91항, 「채부(菜部)」 123항, 「초부(草部)」 267항, 「목부(木部)」 158항이며, 총 745항에 달한다. 「동물문」이라 할 만한 것은 「인부(人部)」 23항을 논외로 하면 「금부(禽部)」 107항과 「수부(獸部)」 236항 및 「어부(魚部)」 53항, 「충부(蟲部)」 95항이며, 총 491항에 이른다.

그런데 실제 수록된 생물종의 수량은 얼마인가 할 때 좀 더 고찰이 필요하다. 각 항목명을 살펴보면, 예컨대 붉은팥(赤小豆), 붉은팥잎(赤小豆葉), 붉은팥꽃(赤小豆花)으로 3항목이지만 식물명으로는 붉은팥 1종이 되며, 검은수탉(烏雄鷄)의 경우 각 부위에 따른 검은수탉고기, 쓸개,

표2-『동의보감』 「생물문」 구성과 항목

	부명		항목	종수
식물문 (745항)	1	곡부	106항	25종(酒類 33종)
	2	과부	91항	42종
	3	채부	123항	78종
	4	초부	267항	212종
	5	목부	158항	102종
동물문 (491항)	6	금부	107항	54종
	7	수부	236항	46종
	8	어부	53항	29종
	9	충부	95항	68종
		1,236항	656종	

염통, 피, 기름, 창자, 간과 깃털, 벗피, 대가리, 날개 등 19항목으로 부연되어 있다. 또 「곡부」 내에는 술에 대한 항목이 구기주, 지황주, 천문동주 등 34항이 수록되어 있어 생물 자료로는 제외하게 된다. 그럼에도 굴조개(牡蠣), 가재(石蟹), 말음(菱仁), 나모딸기(覆盆子), 명덕딸기(蓬蘽) 등 각종 동식물에 대한 한자어와 당시 우리말 표기가 병행되어 있고, 한반도 자생 동식물에 대한 관찰지식이 부여되어 있는 등 그 자료 가치는 매우 높다. 이에 향후 전통생물학 자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서술 항목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재분류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른 식물의 종수는 「곡부」가 33종, 「과부」가 41종, 「채부」가 72종, 「초부」가 206종, 「목부」가 95종으로 도합 447종이다.¹⁷⁾ 그런데 필자가 『동의보감』 탕액편의 수록 목록을 재검토한 결과 다음 도표처럼 곡류 25종, 과류 42종, 채류 78종, 초류 212종, 목류 102종으로 도합 459종으로 집계된다(표2). 자세한 내역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표8-표14).

또한 동물의 종수에 대한 집계 자료는 그간의 연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¹⁸⁾, 필자가 검토한 결과 금류(禽類)가 54종, 수류(獸類)가 46종,

17) 『동의보감』의 식물류 항목은 이경우의 「동의보감 탕액편에 수록된 本草에 관한 식물 분류학적 고찰」(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을 인용하였고, 서강대의 「동의보감 탕액편에 수록된 본초의 분류」(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도 참조된다. 동물류 분류는 관련 논문을 아직 찾지 못하여 추후에 보완하되, 일단 필자의 통계표를 여기에 첨부한다.

18) 예컨대, 허준박물관 홈페이지에서도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을 정도로 수록된 동물의

어류(魚類)가 53종, 충류(蟲類)가 95종으로 함께 197종이 집계된다. 동식물을 합친 수량이 656종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방대한 종수를 수록하였음에도 아쉽게도 하위분류를 설정하지 않아 분류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동의보감』과 동일한 목적의 본초류 문헌인 『본초강목』과 대조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명나라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이 편찬한 『본초강목(本草綱目)』 52권 37책은 당시까지 전해지던 800여 종의 문헌을 참고하고 표본 채집 조사를 병행하여 1,892종의 약물과 1,160장의 도해 및 1만 1,096종의 처방을 담은 중국 본초학 최대의 저술로 꼽힌다(『百度百科』 참조).

그 분류체제는 수부(水部)·화부(火部)·토부(土部)·금석부(金石部)·초부(草部)·곡부(穀部)·채부(菜部)·과부(果部)·목부(木部)·복기부(服器部)·충부(蟲部)·린부(鱗部)·개부(介部)·금부(禽部)·수부(獸部)·인부(人部)에 대한 16부 60류 구성이며, 여기에 수록된 식물 종수는 881종과 부61종을 합한 총 942종에 달하고, 표제어로 제출되지 않은 153종까지 합하면 공히 1,095종에 이른다.

이 중 식물문에 관한 분류는 「초부」·「곡부」·「채부」·「과부」·「목부」의 5부로 편제하였고, 「초부」는 산초(山草)·방초(芳草)·습초(濕草)·독초(毒草)·만초(蔓草)·수초(水草)·석초(石草)·태류(苔類)·잡초(雜草)의 9류로 분류하였다. 「채부」는 훈채(葷菜)류 32종, 유허(柔滑)류 41종, 나채(蓀菜)류 11종, 수채(水菜)류 6종, 지이(芝柎)류 15종의 5류로 분류하였다. 동물 분류는 「충부(蟲部)」·「린부(鱗部)」·「개부(介部)」·「금부(禽部)」·「수부(獸部)」·「인부(人部)」의 6부로 나누었는데, 앞서 살펴본 『여씨춘추』 방식의 오충설 동물분류법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린충(鱗蟲)과 개충(介蟲)은 그대로이고, 우충(羽蟲)은 금부(禽部)로, 모충(毛蟲)은 수부(獸部)로, 나충(裸蟲)은 인부(人部)로 바뀐 정도이며, 그 외 층어류의 충부(蟲部)를 추가한 방식이라 하겠다.

『본초강목』의 이러한 체제와 구성은 『동의보감』의 분류와 내용 분석에 크게 참조되는 바이며, 『동의보감』의 15부명과 『본초강목』의 16부명이 유사하나 차이를 보이는 문제를 포함하여 동식물에 대한 분류방식과 수록 목록을 향후 정밀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크다. 예컨대, 이시진은

종수가 연구되지 않았고, 식물의 종수에도 차이가 심하였다.

표3-『본초강목』 「생물문」 구성과 항목

부명			중수(총 48류 1,225종)	계
식물문	1	초부	9류 山草 70종, 芳草 56종, 濕草 54종, 毒草 47종, 蔓草 73종, 水草 23종, 石草 19종, 苔類 16종, 雜草	358
	2	곡부	4류 麻麥稻類 12종, 稷粟類 18종, 菽豆類 14종, 造釀類 29종	73
	3	채부	5류 葷辛類 32종, 柔滑類 41종, 蔬菜類 11종, 水菜類 6종, 芝 櫛類 15종	105
	4	과부	6류 五果類 11종, 山果類 34종, 夷果類 31종, 味果類 13종, 蔬 果類 9종, 水果類 6종	104
	5	목부	6류 香木類 35종, 喬木類 52종, 灌木類 51종, 寓木類 12종, 苞 木類 4종, 雜木類 7종, 附錄 19종	180
동물문	6	충부	3류 卵生類 45종, 化生類 31종, 濕生類 23종, 附錄 7종	106
	7	린부	4류 龍類 9종, 蛇類 17종, 魚類 31종, 無鱗魚 28종, 附錄 9종	94
	8	개부	2류 龜鱉類 17종, 蛤蚌類 29종	46
	9	금부	4류 水禽 23종, 原禽 23종, 林禽 17종, 山禽 13종, 附錄 1종	77
	10	수부	5류 畜類 28종, 獸類 38종, 鼠類 12종, 寓類 2종, 怪獸 2종	82

당초 「목부(木部)」에 속한 263종에서, 새로 25종을 추가하고, 14종을 「초부(草部)」로 이동하고, 29종은 「만초(蔓草)」로 이동하고, 31종은 「과부(果部)」로 이동하고, 3종은 「채부(菜部)」로 이동하고, 16종은 「기용부(器用部)」로 옮기고, 2종은 「충부(蟲部)」로 옮겼으며, 아울러 「초부」로부터 2종을 가져오고, 외류(外類)에 이름만 있고 사용하지 않는 11종을 옮겼다¹⁹⁾고 하였다. 이는 『본초강목』 단계에서 식물에 대한 분류와 동정(同定)이 크게 변동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런 점들이 『동의보감』에는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 연구가 축적이 되었을 때 우리의 전통생물분류법 이해가 심화됨은 필연이라 할 것이다.

4. 농서류 『농정본사』의 전통생물 분류체계

다음 농서류 중에서 주목되는 자료는 단연 보만재(保晩齋) 서명웅(徐命膺, 1716-1787)의 『농정본사(農政本史)』(1787) 12권 6책이다. 조선시대 자료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생물분류법을 수록한 저술이고, 나름의 기준

19) 王育杰 整理, 『本草綱目』上中下, 金陵版排印本 제2판(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과 견해를 붙여서 특히 초목류에 집중한 식물분류법을 가장 널리 집성하였다는 점에서 전통시대 우리 생물지식의 심화를 크게 도모하고 있다.

정조조 규장각 초대 제학(提學)을 역임하였던 그는 평생을 두고서 친문과 농서의 양방면 개발에 힘을 쏟아, 명종조 어숙권(魚叔權)의 『고사촬요(攷事撮要)』(1554)를 대폭 개정 증보한 『고사신서(攷事新書)』(15권 7책, 1771)와 문물백과 제반의 류서물로 집성한 『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12권 6책, 1787)에 이어, 바로 농서 3부작의 최종에 해당하는 『농정본사』를 편찬하였다.

이 책은 그의 문집인 『보만재총서(保晩齋叢書)』 23-34권(13-18책)에 『본사(本史)』란 제명으로 수록되어 있던 것인데, 이름만 들어서는 역사책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고 또 그 내용이 농사 전반에 관한 것이어서 알아보기 쉽게 하고자 필자가 『농정본사(農政本史)』라 개칭하고서 그 자료적 가치와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²⁰⁾

『농정본사』의 12권 구성이 1. 본기(本紀) 2. 구지(九志) 3. 세가(世家) 4. 열전(列傳)인데, 본기와 지(志), 세가, 열전의 이름은 모두 왕조의 역사서인 기전체(紀傳體) 사서(史書) 편제를 따른 것이다. 서명용이 농정을 서술하면서 기전체 역사서를 표방한 것은 그만큼 조선 사회에서 가지는 농사의 중요성과 그 역사적 내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한 때문이다.

그는 서문에서 『홍범』 팔정(八政)에서 식(食)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① 도(稻)·서(黍)·직(稷)·량(粱)·맥(麥)·숙(菽)·두(豆)·마(麻)의 팔곡(八穀)을 「본기」로 삼았고, ② 다음으로 이 팔곡과 관련한 농사의 제반 사항을 「지(志)」로 하고, ③ 소채과실(蔬菜果實)을 「세가」로, ④ 수목초훼(水木草卉)를 「열전」으로 분류했다고 하여, 매우 의도적인 편제를 장치하였음을 보여준다.

『농정본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곡류 8분기: 도기(稻紀), 서기(黍紀), 직기(稷紀), 양기(粱紀), 맥기(麥紀), 숙기(菽紀), 두기(豆紀), 마기(麻紀)

20) 『농정본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일권, 「조선시대 飮食門 류서류와 음식생태학」(『김치와 김장문화의 인문학적 이해』, 2013)에서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다시 김일권, 「전통시대 생태학 자료기반과 자연학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생태학회, 〈전통생태연구의 현황과 전망〉, 2013. 11. 22)로 발표한 바 있다.

표4- 『농정본사』의 목차와 구성(『보만재총서』 권23-권34)

	紀傳	목차 (본기, 세가, 열전 총 707종 부121종 = 828종)	권차
제1	「8本紀」 (총 36종 부13종)	序 後序	권1
		稻紀(5종), 黍紀(12종), 稷紀(1종), 粱紀(2종 부11), 麥紀(3종 부4), 菽紀(1종), 豆紀(9종 부1), 麻紀(3종 부1)	권2
제2	「9志」	九屬志, 井牧志, 灌溉志	권3
		鑄器志, 稼穡志, 倉廩志	권4
		孳養志, 荒政志, 農書志	권5
제3	「10世家」 (총 155종 부31종)	葦菜世家(16종 부7), 蓏菜世家(20종 부1), 滑菜世家(28종 부7), 水菜世家(12종 부3), 芝栴世家(15종), (총 5류 91종 부18종)	권6
		五果世家(5종 부1), 核果世家(36종 부10), 水果世家(3종), 藤果世家(12종 부2), 叢果世家(8종), (총 5류 64종 부13종)	권7
제4	「16列傳」 (총 516종 부77종)	貞木列傳(12종 부12), 香木列傳(16종 부6), 喬木列傳(38종 부9), 灌木列傳(36종 부1), (총 4류 102종 부28종)	권8
		靈草列傳(12종 부5), 香草列傳(18종 부6), 芳草列傳(24종 부16)	권9
		山草列傳(50종), 濕草列傳(22종 부1), 野草列傳(49종 부7)	권10
		石草列傳(25종 부5), 水草列傳(64종 부1), 蓏草列傳(15종 부1)	권11
		蔓草列傳(55종 부2), 褊草列傳(37종 부5), 方裔列傳(43종), (총 12류 414종 부49종)	권12

- ② 농정류 9지: 구호지(九屬志), 정목지(井牧志), 관개지(灌溉志), 자가지(鑄器志), 가색지(倉廩志), 자양지(孳養志), 황정지(荒政志), 농서지(農書志)
- ③ 채과류 10세가: 훈채세가(葦菜世家), 나채세가(蓏菜世家), 활채세가(滑菜世家), 수채세가(水菜世家), 지이세가(芝栴世家), 오과세가(五果世家), 핵과세가(核果世家), 수과세가(水果世家), 등과세가(藤果世家), 총과세가(叢果世家)
- ④ 초목류 16열전: 정목열전(貞木列傳), 향목열전(香木列傳), 교목열전(喬木列傳), 관목열전(灌木列傳), 영초열전(靈草列傳), 향초열전(香草列傳), 방초열전(芳草列傳), 산초열전(山草列傳), 습초열전(濕草列傳), 야초열전(野草列傳), 석초열전(石草列傳), 수초열전(水草列傳), 나초열전(蓏草列傳), 만초열전(蔓草列傳), 편초열전(褊草列傳), 방예열전(方裔列傳)

표5-〈果部〉의 분류 비교

『본초강목』 〈과부〉		『농정본사』 〈과부〉	
오과류 (五果類)	오얏, 살구, 매실, 복숭아, 밤, 대추 등 11종	오과류 (五果類)	오얏, 살구, 복숭아, 밤, 대추의 5종
산과류 (山果類)	배, 모과, 산사, 능금, 안석류, 은행, 호도 등 34종	핵과류 (核果類)	배, 감, 꿀, 유자, 매실, 능금, 앵도, 모과, 석류, 사과, 은행, 호도, 빈랑, 무화과 등 36종
이과류 (夷果類)	여지, 감람(橄欖), 해송자, 대복자 등 31종	수과류 (水果類)	연실(蓮實), 검인(芡仁), 능인(菱仁)의 3종
미과류 (味果類)	진초(秦椒, 분지열매), 촉초(蜀椒, 조피나무), 만초(蔓椒), 호초(胡椒, 후추) 등 13종	등과류 (藤果類)	왕과(王瓜, 쥐참외), 서과(西瓜, 수박), 포도, 여지, 복분자, 오미자 등 12종
나과류 (蓀果類)	참과(蓀瓜, 참외), 서과(수박), 포도, 감자(甘蔗), 사탕(沙糖) 등 9종	총과류 (叢果類)	오다(五荼), 오자(五蔗), 오초(五楸), 고로(臯蘆) 등 8종
수과류 (水果類)	연우(蓮藕), 홍백련화, 능실(菱實), 검실(芡實), 오우(烏芋), 자고(慈姑)의 6종		

위 「8본기」와 「10세가」 및 「16열전」에 수록된 식물 종수를 모두 헤아리면 총 828종에 달하는데, 식물학 측면에서 재구성한다면, 일상 식생활에 관계하는 곡채과문(穀菜果門)과 일상 자연생활에서 만나는 초목문(草木門)으로 가를 수가 있으며, 전자는 〈곡부(穀部)〉 36종 부13종과 〈채부(菜部)〉 91종 부18종 및 〈과부(果部)〉 64종 부13종으로 분장되었고, 후자는 〈목부(木部)〉 102종 부28종과 〈초부(草部)〉 414종 부49종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구성 내역은 표4와 같다.²¹⁾

여기에 수록된 분류명은 『본초강목』의 것과 유사하여 그 분류체제를 수용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채부〉를 제외하면 양자의 분류명과 내역이 동일하지가 않아 『농정본사』에는 서명웅 자신의 안목과 해석이 크게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

〈과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본초강목』이 오과류(五果類)·산과류(山果類)·이과류(夷果類)·미과류(味果類)·나과류(蓀果類)·수과류(水果類)의 6류²²⁾로 분류한 반면에, 『농정본사』는 오과류(五果類)·핵과류(核

21) 표4는 김일권(2013)의 논문에 실린 『농정본사』 구성표를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22) 『본초강목』 본문에서 미과류(味果類)는 음식맛을 돕는 조미(助味)의 '미류(味類)'로, 나과류(蓀果類)는 넝쿨열매의 '나류(蓀類)'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들이 과류(果類)의 일종으로 분류된 이름인 바, 의미의 전달력을 위해 각기 미과류, 나과류로 번역하였다.

果類) · 수과류(水果類) · 등과류(藤果類) · 총과류(叢果類)의 5류로 달리 분류하였다. 양자에 같은 분류명으로는 오과류와 수과류의 둘이 있으며, 오과류는 오행사상에 따라 과일의 으뜸을 이행도율조(李杏桃栗棗)의 다섯 종류로 분류한 방식이고, 수과류는 물속에 자라는 연밥(蓮實), 가시연밥(茨仁), 마름(菱仁) 등을 지칭한 용어이다(표5).

나머지 분류명은 하위 수록 품종을 살펴볼 때, 서명응이 말한 핵과류는 이시진의 산과류를 개칭한 이름이고, 등과류는 이시진의 나과류와 이과류가 섞인 이름이며, 총과류는 조미료 재료가 되는 수종인 미과류를 개칭한 이름이다. 『농정본사』의 서술을 보면, 핵과류는 둥근 형태의 과실이고 견고한 씨를 가진 무리를 지칭하고 있으며, 등과류는 구불하게 끝어지는 넝쿨의 특징을 지닌 무리를 일컫고 그 형상이 마치 여름의 불과 같다고 보아 오행상 화과(火果)로 분류하고 있다.

총과류는 오미를 다 돕는 과류이고 또 열매가 촘촘히 모여서 맺히는 무리라는 뜻에서 이름하였고, 이시진이 단지 토(土)에 속하는 과일만을 미과(味果)로 칭한 것은 수화목금(水火木金)에 따른 시고 달고 쓰고 매운 오미(五味)를 다 담아내지 못한 말이라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미(味)를 총(叢)으로 바꾸어 「총과세가(叢果世家)」를 짓는다고 하였다. 이어서 총과를 세분하면, 오다(五茶)는 금(金)에 속하고, 오자(五蔗)는 토(土)에 속하고, 오초(五椒), 고로(阜蘆), 당자(欖子)는 화(火)에 속하고, 목염(木鹽)은 수(水)에 속하고, 산각(酸角), 초림자(醋林子)는 목(木)에 속하는 것이라 부연하였다.

또한 양자의 세부 목록에는 분류명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 매실이 『본사』는 핵과류에 속한 반면에 『강목』은 오과류에 속하고, 여지(荔枝)는 『본사』가 등과류에, 『강목』은 이과류에 배속하였다. 침과(鼈瓜, 참외)의 경우 당초 채부(菜部)에 속하였다가 『강목』에서는 과부(果部)로 옮겨지는 등 분류가 변동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촉초(蜀椒, 조피나무)가 『강목』은 과부(果部)이나 『동의보감』은 목부(木部)로 배속되어 있어 분류가 다르다.

이상은 <과부>의 경우를 예시 삼아 살펴본 것이며, 앞으로 『농정본사』 전체의 식물 목록에 대해 일일이 분류 특성과 동정을 하여 전통시대 식물학 분류체계 기준을 수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겠다.

과(果)는 나무에서 열리는 과실류이고, 나(蘘)는 땅에서 열리는 과실류란 뜻을 지니며, 둘다 열매 과일을 뜻한다는 점에서 흔히 과라(果蘘)로 통칭한다.

표6-『농정본사』 훈채류 목록과 우리말 속명 예시

	『농정본사』 「훈채세가」		『동의보감』
1	구(韭)/부추	속명 부채(富菜)	부취
2	총(蔥)/파	속명 파(菠)	파
3	해(薺)/염교	속명 염교(髡薺)	염교
4	강(薑)/생강	속명 생강(生薑)	생강
5	개(芥)/겨자	속명 산개(山芥) 其子俗名 계자(薺子)	갯, 又云계즈
6	근(葷)	속명 없음	
7	도(茶)/쌈바귀	속명 고자을박이(苦紫乙朴伊)	고춧바기
8	산(蒜)/마늘	속명 마늘(麻蘆)	마늘
9	자산(紫蒜)	속명 자총(紫蔥)	없음
10	동호(同蒿)	속명 없음	cf. 물뽕(囊蒿)
11	운대(芸薹)/평지	속명 평지(萃芝)	평지
12	호수(胡葵)/고수	속명 고시(苦柴)	고시
13	자근(紫菫)	일명 적근(赤芹) 일명 촉채(蜀菜) 일명 기빈[起貧(草)] 속명 없음	없음
14	나락(羅勒)	일명 란향(蘭香) 혹은 향채(香菜) 혹은 예자[賢子(草)] 속명 없음	나락
15	한채(焯菜)	속명 없음	없음
16	고초(苦楸)/고추	속명 왜고초(倭苦楸)	없음

한편 『농정본사』에는 당시 불렸던 속명이 한자발음으로 혹은 이두식으로 수록되어 있어 우리말 식물 이름의 갈래와 유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한다.

그 몇 가지 예시를 들면, 훈채류 중에서 부추(韭)는 ‘부채(富菜)’, 파(葱)는 ‘파(菠)’, 쌈바귀(茶)는 ‘고질박이(苦紫乙朴伊)’, 고추(苦草)는 ‘왜고초(倭苦楸)라 불렸다. 마늘(蒜)은 ‘마늘(麻蘆)로 표기되었는데, 『동의보감』에 기록된 ‘마늘’의 음차로 할 수 있다(표6).

나채류 중에서 동아(冬瓜)는 ‘동화(冬華)’, 수세미(絲瓜)는 ‘수사외(垂絲萹)’, 토란(芋子)은 ‘토련(土蓮) 또는 ‘우은대(右隱臺)’, 도라지(桔梗)는 ‘돌아질(莢莪叱)’이라 하였다. 더덕(沙蔘)은 ‘속명 가덕(加德)’이라 하였는데 가(加)가 더하다란 뜻이어서 이두표기일 때는 ‘더’가 되므로 가덕(加德)은

더덕을 이두식으로 표기한 말이라 하겠다.

이처럼 흥미로운 우리말 식물 이름 표기를 18세기 기준으로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전통생물지식자료가 다름 아닌 『농정본사』라 이를 수 있는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전통시대에 활용하였던 생물지식의 자료 범주를 개괄하면서 관련 문헌의 갈래를 크게 류서류 문헌과 본초류 문헌 및 농서류 문헌의 3대 범주로 가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류서류는 흔히 문물전장제도의 백과전서라 일컫듯이 당시 지식의 총람 성격을 지니며, 여기에 동식물에 대한 목록과 분류를 각이한 방식으로 수록하고 있다. 본초류는 의약학 목적으로 약용식물에 주안점을 두고서 약용광물까지 포괄하는 서술체계를 지니는 것이어서 식물학 자체의 관점과는 다소 다르나, 전통식물에 관한 가장 자세한 목록과 분류를 고심하여왔던 갈래인 까닭에 그 고찰의 의의는 매우 높다. 당시 해당 식물의 형태를 정밀 묘사한 도해류 자료는 모두 이들 본초류 문헌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여 전통식물학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크다. 마지막 농서류는 농정과 농사의 재배법에 주목한 갈래인 바, 농가에서 직·간접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체계인 곡식과 양잠 및 작물의 농사법과 채소, 과수, 원예 등의 가수재배법을 비롯하여 소와 말, 닭, 양봉 등 가축의 목양법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중에 전통식물과 동물에 대한 인식과 분류 지식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개변되거나 전승되어 왔다. 이들 3대 범주별로 각기의 연구방법론이 필요하므로 향후 여기에 적절한 방식의 연구 활성화를 기대한다.

이어서 본고는 조선시대 100여 종의 문헌 중에서 전통생물 분류지식 연구에 보다 직접적인 서술을 지닌 것이라 판단되는 16종 문헌을 추출하였으며, 그중 3대 범주별로 대표적 문헌 하나씩을 예시 삼아 내용을 검토하였다.

류서류로서는 양란 이후 처음 집성된 김육의 『유원총보』를 대표로 살펴보았다. 전체 25문 구성 중에서 「생물문」으로 포괄되는 것 식물에

표7-한중 전통문헌의 동식물 분류법 개요

서명	예문유취	농상집요	본초강목	동의보감	농정전서	유원총보	본초종신	농정본사
	구양순	대시농사	이시진	허준	서광계	김육	오익락	서명응
	624	1273	1578	1610	1639	1643	1757	1787
	류서류	농서류	본초류	본초류	농서류	류서류	본초류	농서류
식물계	百穀部	九穀	穀部	穀部	穀部	米穀門	穀部	8本紀
		瓜菜	菜部	菜部	蔬部		菜部	五菜世家
					蕪部			
	果部	果實	果部	果部	果部		果部	五果世家
	草部	藥草	草部	草部	草部	草木門	草部	4木列傳
	木部	竹木	木部	木部	木部		木部	12草列傳
동물계	鳥部	禽魚	禽部	禽部		鳥獸門	禽部	
	獸部		獸部	獸部			獸部	
	鱗介部		鱗部				鱗部	
			介部				介部	
	蟲多部		蟲部	蟲部		蟲魚門	蟲部	
			魚部			魚部		
부수	8	6	10	9	6	4	11	5
종수			1,225종	656종		134종	705종	828종

관한 「미곡문」, 「초목문」과 동물에 관한 「조수문」, 「충어문」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다음 본초류로서는 단연 허준의 『동의보감』이 주목되며, 전체 15부 구성 중에서 「식물문」에 해당하는 것 「곡부」 33종과 「과부」 41종, 「채부」 72종, 「초부」 206종, 「목부」 158종으로 수록하여 모두 5부 분류에 447종을 망라하였고, 실제 종수로는 곡류가 25종, 과류가 42종, 채류가 78종, 초류가 212종, 목류가 102종으로 도합 459종이 수록되었다. 조선 중기에 이만큼의 식물을 정리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의가 높다. 더불어 전통시대 식물의 분류명인 초목부와 과채부 또는 곡과채부 형식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물문」은 「금부」와 「수부」 및 「어부」와 「충부」의 4부 체제로 구성하여, 흔히 전통시대 동물을 분류하는 이름인 금수와 충어를 분류축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197종 수록).

다음 농서류 중에서 서명응의 『농정본사』는 특이한 기전체 역사서 체제를 모방하여 식물의 전체를 분류하고 목록화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식물의 전통 분류법인 곡부와 채과부 및 초목부의 3대 부분으로 크게 분류하였는데, 자세하게는 곡부는 도·서·직·양·맥·숙·두·

마의 8류로, 채소부는 혼채류·나채류·활채류·수채류·지이류의 5류로, 과실부는 오과류·핵과류·수과류·등과류·총과류의 5류로 분류하였으며, 목부는 정목류·향목류·교목류·관목류의 4류로 나누었고, 초부는 영초류·향초류·방초류·산초류·습초류·야초류·석초류·수초류·나초류·만초류·편초류·방예류에 이르는 방대한 12류 체제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총 828종의 식물 목록에 대해 당시 불렀던 우리말 명칭까지 병기한 자료여서 앞으로 그 연구의 필요성과 자료의 가치는 매우 높다.

이렇게 전통생물지식의 3대 범주별로 그 서술 특성이 같지가 않고, 수록된 생물 목록의 수량이 매우 많으며, 한자어로 기술된 까닭에 각 생물종에 대한 정의와 해석을 위해 중국 문헌자료와 상호 비교하여야 하는 연구의 어려움이 크다(표7).²³⁾ 나아가 여기에는 현대 생물분류학적 동정까지 나아감으로써 우리 전통생물의 자원과 지식의 근거를 널리 확보하기를 요청한다. 향후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지원과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3) 표7은 본고에서 언급한 전통분류법 개요를 요약한 것이며, 후일 일일이 문헌을 자세히 분석하여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표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작성하였다.

〈부록: 『동의보감』 수록의 식물 목록〉

1. 제4 곡부(穀部) 106항: 곡류(穀類) 25종, 주류(酒類) 33종
 2. 제10 과부(果部) 91항: 과류(果類) 42종
 3. 제11 채부(菜部) 123항: 채류(菜類) 78종
 4. 제12 초부(草部) 상 79항: 초류(草類) 57종
제13 초부(草部) 하 188항: 초류 155종 / 총 267항 212종
 5. 제14 목부(木部) 158항: 목류(木類) 102종
- 이상 〈식물문〉 745항목에 459종으로 집계됨.²⁴⁾

표8-『동의보감』 탕액편 제4 穀部 품명과 향명
(凡106항 = 穀類 25종, 味料 7종, 酒類 33종)

	품명	현대 이름	鄉名
곡1	胡麻/호마	(검은 참깨)	거문츄매
곡2	白油麻/백유마	(흰 참깨)	흰츄매
곡3	麻子/마자	(삼씨)	삼씨, 或云열씨
곡4	大豆/대두	(콩)	흰콩
곡5	穉豆/여두	(쥐눈이 콩)	효근거문콩
곡6	赤小豆/적소두	(붉은 팥)	붉근팥
곡7	粟米/속미	(좁쌀)	조쌀
곡8	粳米/갱미	(멥쌀)	도흔니쌀
곡9	糯米/나미	(찹쌀)	니출쌀
곡10	靑梁米/청량미	(생동쌀)	상동출
곡11	黍米/서미	(기장쌀)	기장쌀
곡12	秫米/출미	(찰기장쌀)	출기장쌀
곡13	小麥/소맥	(밀)	밀
곡14	大麥/대맥	(보리)	보리쌀
곡15	穬麥/광맥	(겉보리)	겉보리
곡16	靑穎麥/청과맥	(쌀보리)	쌀보리
곡17	蕎麥/교맥	(메밀)	모밀
곡18	穉豆/변두	(변두콩, 까치콩)	변두콩
곡19	菘豆/녹두	(녹두)	녹두
곡20	豌豆/완두	(완두, 잠두)	완두
곡21	薏苡仁/의이인	(율무)	율미 쌀
곡22	秫藁/출촉	(수수)	수수

24) 이하의 현대명 관련은 권건혁 편, 『편집동의보감』(도서출판반룡, 2005, 8)을 참고함.

	품명	현대 이름	鄉名
곡23	稗子米/패자미	(들피쌀)	살히쌀
곡24	鬮子粟/앵자속	(양귀비씨)	양귀비씨
곡25	稷米/직미	(피쌀)	피쌀
미1	豉/시	(메주, 약전국)	약전국
미2	醬/장	(장)	장
미3	醋/초	(식초)	초
미4	飴糖/이당	(엿)	흑탕 又云거믄엿
미5	豆腐/두부	(두부)	두부
미6	春杵頭細糠/옹저두세강	(절구 공이에 묻은 거)	방향고애무든겨
미7	糟/조	(술지게미)	술주여미

표9-『동의보감』 탕액편 제4 穀部の 酒類(33종)

	품명	현대 이름	鄉名
酒1	酒/주	(술)	술
주2	糟下酒/조하주	(거르지 않은 술)	
주3	豆淋酒/두림주	(검은콩을 볶아서 만든 술)	
주4	葱豉酒/총시주	(파와 두시로 빻은 술)	
주5	葡萄酒/포도주	(포도로 빻은 술)	
주6	桑椹酒/상심주	(오디즙을 내어 빻은 술)	
주7	枸杞酒/구기주	(구기자로 빻은 술)	
주8	地黃酒/지황주	(지황으로 빻은 술)	
주9	戊戌酒/무술주	(참쌀 세말과 누런 개 한 마리로 빻은 술)	
주10	松葉酒/송엽주	(술잎으로 빻은 술)	
주11	松節酒/송절주	(소나무 옹이로 빻은 술)	
주12	菖蒲酒/창포주	(창포로 빻은 술)	
주13	鹿頭酒/늑두주	(사슴의 머리를 고은 물로 빻은 술)	
주14	羔兒酒/고아주	(새끼양을 잡아 고은 물로 빻은 술)	
주15	蜜酒/밀주	(꿀로 빻은 술)	
주16	春酒/춘주	(겨울에 담가 봄에 먹는 술)	
주17	無灰酒/무회주	(아무것도 섞지 않고 누룩으로만 빻은 술, 순주)	
주18	餅子酒/병자주	(참쌀가루와 여러 약을 섞어서 빻은 술)	
주19	黃連酒/황련주		
주20	菊花酒/국화주	(국화로 빻은 술)	
주21	天門冬酒/천문동주	(천문동으로 빻은 술)	
주22	暹羅酒/섬라주	(섬라국에서 온 술)	
주23	紅麴酒/홍곡주		
주24	東陽酒/동양주		
주25	金盆露/금분로	(처주에서 나는 술)	

	품명	현대 이름	鄉名
주26	山東秋露白/산동추로백		
주27	蘇州小瓶酒/소주소병주	(뜨거운 약성이 들어가 있는 누룩으로 빚은 술)	
주28	南京金華酒/남경금화주		
주29	淮安菘豆酒/회안녹두주	(녹두가 들어가 있는 누룩으로 빚은 술)	
주30	江西麻姑酒/강서마고주		
주31	燒酒/소주		
주32	煮酒/자주		
주33	梨花酒/이화주		

표10-『동의보감』 탕액편 제2 水部(범 35항, 水類 34종)

	품명	현대 이름	鄉名
수0	論水品/논수품	(물의 품질을 알아내는 방법)	
수1	井華水/정화수	(새벽녘에 처음 길어온 우물물)	새배처엄기른우물물
수2	寒泉水/한천수	(차가운 샘물)	찬심물
수3	菊花水/국화수	(국화 밑에서 나는 물)	구화피기맛히셔나느물
수4	臘雪水/납설수	(산달 납향 즙에 내린 눈이 녹은 물)	섯돌납향의눈녹은물
수5	春雨水/춘우수	(정월에 처음으로 내린 빗물)	정월처엄은빈물
수6	秋露水/추로수	(가을 이슬)	꺾올이슬물
수7	冬霜/동상	(겨울에 내린 서리)	겨울에온서리
수8	霜/박	(우박)	무뤼
수9	夏冰/하빙	(여름철의 얼음)	얼음
수10	方諸水/방제수	(큰 조개껍질을 밝은 달빛에 비추어서 받은 물)	볼근돌에조개에바돈물
수11	梅雨水/매우수	(매화열매가 누렇게 될 때 내린 빗물)	미실누를제운빈물
수12	半天河水/반천하수	(큰 나무의 구새 먹은 구멍과 왕대 그루터기에 고인 빗물)	나모구무과왕대그르헤고인빈물
수13	屋霏水/옥류수	(벼짚 지붕에서 흘러내린 물)	디새집우히셔흘러느린물
수14	茅屋漏水/모옥루수	(새 이엉에서 흘러내린 물)	새집우히셔흘러느린물
수15	玉井水/옥정수	(옥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샘물)	옥나느디셔심논물
수16	碧海水/벽해수	(짙 바닷물)	바다뽀물
수17	千里水/천리수	(멀리서 흘러 내려온 강물)	멀리셔흘러오느강물
수18	甘爛水/감란수	(여러 번 휘저어서 거품이 생긴 물)	만히동탕이터거품진물
수19	逆流水/역류수	(거슬러 돌아 흐르는 물)	거스리도라흐르느물
수20	順流水/순류수	(순하게 흐르는 물)	순히흘러오느물
수21	急流水/급류수	(급하게 흐르는 여울물)	여흐레썰리흐르느물
수22	溫泉/온천	(온천물)	더운심물
수23	冷泉/냉천	(맛이 뚝고 찬 물)	마시뽀고촌물
수24	漿水/장수	(좁쌀죽의 윗물)	조뽀죽운물

	품명	현대 이름	鄉名
수25	地漿/지장	(누런 흙물)	누른흙물
수26	潦水/요수	(산골에 고인 빗물)	외솔애비와고인물
수27	生熟湯/생숙탕	(끓인 물에 찬물을 탄 물)	살흔물과찬물뺀니
수28	熱湯/열탕	(뜨겁게 끓인 물)	덥게살힌물
수29	麻沸湯/마비탕	(생삼을 삶은 물)	싱삼살은물
수30	縲絲湯/조사탕	(누에고치를 삶은 물)	고티현물
수31	甑氣水/증기수	(밥을 찌는 시루 뚜껑에 맺힌 물)	밥피논시르둑게예미친물
수32	銅器上汗/동기상한	(놋그릇에 오른 김)	통그릇시미친물
수33	炊湯/취탕	(묵은 송늬)	무근숙늬물
수34	六天氣/육천기	(공기 마시는 것)	

표11-『동의보감』 탕액편 제10 果部(범 91항, 果類 42종)

	품명	현대 이름	鄉名
果1	蓮實/연실	(연밥)	년밥
과2	橘/귤	(귤)	동덩귤
과3	青橘/청귤	(푸른 귤)	프른귤
과4	柚子/유자	(유자)	유즈
과5	乳柑子/유감자	(감자)	감즈
과6	大棗/대조	(대추)	대추
과7	蒲萄/포도	(포도)	보도
과8	蓂蓂/영옥	(머루)	원말위
과9	栗子/율자	(밤)	밤
과10	覆盆子/복분자	(나무딸기)	나모딸기
과11	蓬蘽/봉루	(멍덕딸기)	멍덕딸기
과12	苳仁/감인	(가시연밥)	거식년밤
과13	菱仁/능인	(마름)	말음
과14	櫻桃/앵도	(앵두)	이스랏
과15	橙子/등자	(등자나무)	
과16	梅實/매실	(매화열매)	미화여름
과17	木瓜/모과	(모과)	모과
과18	檳櫨/명사	(명자)	명자
과19	紅柿/시	(연감)	감
과20	小柿/소시	(고욤)	고욤
과21	檳柿/비시	(먹감)	
과22	枇杷/비파	(비파나무)	
과23	荔枝/여지	(여주)	
과24	龍眼/용안	(원안)	
과25	乳糖/유당	(유당)	

	품명	현대 이름	鄉名
과26	沙糖/사당	(사탕)	
과27	桃/도	(복숭아)	복숭화
과28	杏/행	(살구)	슬고
과29	石榴/석류	(석류)	석뉴
과30	梨子/이자	(배)	빅
과31	林檎/임금	(능금)	님금
과32	李/이	(오얏)	오얏
과33	胡桃/호도	(당추자)	당추즈
과34	獼猴桃/미후도	(다래)	드래
과35	海松子/해송자	(잣)	жат
과36	榛子/내자	(작은 능금)	먼, 或云농빈
과37	榛子/진자	(개암)	가암
과38	銀杏/은행	(은행)	은형
과39	榧子/비자	(비자, 옥비, 적과)	비즈
과40	山楂子/산사자	(아가위, 당부자)	아가외
과41	椰子/야자	(야자수)	
과42	無花果/무화과	(무화과)	

표12-『동의보감』 탕액편 제11 菜部(범 123항, 菜類 78종)

	품명	현대 이름	鄉名
채1	生薑/생강	(생강)	싱강
채2	芋子/우자	(토란)	토란
채3	烏芋/오우	(올방개)	올미, 又云가초라기
채4	冬葵子/동규자	(아욱씨)	돌아욱씨
채5	紅蜀葵/홍촉규	(용촉지방에서 심는 촉규)	블근웃피논규화
채6	黃蜀葵花/황촉규화	(닥풀꽃)	일일화
채7	芡實/현실	(비름)	비름
채8	赤芡/적현	(붉은 비름)	
채9	紫芡/자현	(자줏빛 비름)	
채10	馬齒芡/마치현	(쇠비름)	쇠비름
채11	蔓菁/만칭	(순무)	순무우
채12	蘿菔/나복	(무)	덴무우
채13	菘菜/승채	(배추)	빅치
채14	竹筴/죽순	(죽순)	득순
채15	西瓜/서과	(수박)	슈박
채16	瓠瓜/참과	(참외)	츄외
채17	野瓠瓜/야참과	(들참외)	
채18	白冬瓜/백동과	(동아)	동화

	품명	현대 이름	鄉名
채19	胡瓜/호과	(오이)	외
채20	越瓜/월과	(월지방에서 생산되는 오이)	
채21	絲瓜/사과	(수세미)	수세외
채22	芥菜/개채	(겨자, 갓)	갓, 又云계즈
채23	白芥/백개	(흰겨자)	흰계즈
채24	萵苣/와거	(상추)	부루
채25	白苣/백거	(백거)	
채26	苦苣/고거	(들상추, 편거)	식화
채27	苦菜/고채	(씀바귀)	고춧바귀
채28	薺菜/제채	(냉이)	나이
채29	沙參/사삼	(더덕)	더덕
채30	薺萁/제니	(모싯대의 뿌리)	계로기
채31	桔梗/길경	(도라지)	도랏
채32	葱/총	(파)	파
채33	胡葱/호총	(뇌파)	
채34	大蒜/대산	(마늘)	마늘
채35	小蒜/소산	(달래)	족지
채36	野蒜/야산	(달래)	돌랑괴
채37	韭菜/구채	(부추)	부치
채38	薺菜/해채	(염교)	염교
채39	荊芥/형개	(명가)	명가
채40	紫蘇/자소	(차조기)	춌조기
채41	香薷/향유	(노아기)	노아기
채42	薄荷/박하	(영생이)	영심이
채43	茄子/가자	(가지)	가지
채44	水芹/수근	(미나리)	미나리
채45	渣芹/사근	(그루터기에서 돌아난 어린 미나리)	
채46	蓴菜/순채	(순채)	순
채47	蓼實/요실	(여뀌)	엇뀌
채48	胡葵/호수	(고수)	고식
채49	羅勒/나룩	(나룩)	
채50	荳子/임자	(들깨)	들뻬
채51	龍葵/용규	(까마중이)	가마중이
채52	蕨菜/귤채	(고사리)	고사리
채53	蕨菜薇/귤채미	(고비)	회초미
채54	苜蓿/목숙	(거여목)	거여목
채55	蕺荷/양하	(양하)	양하
채56	戟菜/즙채	(멸)	멸
채57	芸薹/운대	(유채, 평지)	평지
채58	菘薹/군달	(근대)	근대

	품명	현대 이름	鄉名
채59	菠薐/파릉	(시금치)	시근치
채60	藜藿/번루	(별꽃, 닭의장풀, 계장초)	닭의장가비
채61	楮瓠/침호	(단 박)	단박
채62	苦瓠/고호	(쓴 박)	쓴박
채63	木耳/목이	(나무 버섯)	남기도든버섯
채64	桑耳/상이	(뽕나무버섯)	
채65	槐耳/괴이	(희화나무버섯)	
채66	蘑菇/마고	(표고버섯)	표고
채67	石耳/석이	(돌옷)	
채68	菌子/균자	(땅버섯)	싸해도든버섯
채69	松耳/송이	(송이버섯)	
채70	海菜/해채	(미역)	머육
채71	海藻/해조	(말)	물
채72	海帶/해대	(다시마)	다스마
채73	昆布/곤포	(곤포)	
채74	甘苔/감태	(김)	
채75	鹿角菜/녹각채	(청각채)	
채76	藜蒿/누호	(물썩)	물썩
채77	木頭菜/목두채	(두릅나물)	둘흠
채78	白菜/백채	(머위)	머휘

표13- 『동의보감』 탕액편 제12·13 草部 267항(上79, 下188) 212종(57+155)

	품명	현대 이름	鄉名
草1	黃精/황정	(죽대)	죽대
초2	菖蒲/창포	(석창포)	석창포
초3	甘菊花/감국화	(국화꽃)	강성황
초4	白菊花/백국화	(흰국화)	흰국화
초5	苦蕒/고이	(들국화)	
초6	人參/인삼	(인삼)	삼
초7	天門冬/천문동	(천문동)	
초8	甘草/감초	(감초)	
초9	生地黃/생지황	(생지황)	
초10	熟地黃/숙지황	(숙지황)	
초11	白朮/백출	(삼주)	삼두
초12	蒼朮/창출	(창출)	
초13	兔絲子/토사자	(새삼)	새삼
초14	牛膝/우슬	(쇠무릎)	쇠무릎디기
초15	菴蔚子/충울자	(익모초)	암눈비야

	품명	현대 이름	鄉名
초16	柴胡/시호	(뫼미나리)	뫼미나리
초17	麥門冬/맥문동	(겨우살이)	겨우살리
초18	獨活/독활	(뫼두릅)	삻둘릅
초19	羌活/강활	(강호리)	강호리
초20	升麻/승마	(끼절가리)	씩덜가리
초21	車前子/차전자	(질경이)	길경이, 一名뽕이
초22	木香/목향	(목향풀)	
초23	薯蕷/서여	(마)	마
초24	澤瀉/택사	(쇠귀나물)	쇠귀노물
초25	遠志/원지	(애기풀)	아기풀
초26	龍膽/용담	(과남풀)	과남풀
초27	細辛/세신	(족도리풀)	
초28	石斛/석곡	(석곡풀)	석곡풀
초29	巴戟天/파극천	(부조초)	
초30	赤箭/적전	(천마, 수자해조쫄)	턴마
초31	菴藷子/엄려자	(개재비쫄)	진쫄봉
초32	荊藟子/석명자	(굵은 냉이)	굵근나이
초33	卷栢/권백	(부처손)	부터손
초34	藍藤根/남등근	(가사새풀)	가스새
초35	藍/남	(쫄)	쫄
초36	芎藭/궁궁	(궁궁이)	궁궁이
초37	黃連/황련	(괭괭이풀)	
초38	絡石/낙석	(담쟁이덩굴)	담쟁이
초39	薜荔/벽려	(줄사철나무)	
초40	白茯苓/백질러	(흰납가새풀)	납가시
초41	黃芪/황기	(단너삼)	든너삼
초42	肉蓯蓉/육종용	(육종용)	
초43	防風/방풍	(방풍)	병풍노물
초44	蒲黃/포황	(부들꽃가루)	부들쫄가루
초45	續斷/속단	(검살풀)	
초46	漏蘆/누로	(절구대)	절국대
초47	營實/영실	(짚레나무)	딜위
초48	決明子/결명자	(초결명)	초결명
초49	丹參/단삼	(단삼)	
초50	茜/천	(꼭두서니)	꼭두송
초51	五味子/오미자	(오미자)	오미쫄
초52	旋花/선화	(메꽃)	멧쫄
초53	蘭草/난초	(난초)	
초54	忍冬/인동	(겨우살이덩굴)	겨우살리너쫄
초55	蛇床子/사상자	(뱀도라)	뱀암도라

	품명	현대 이름	郷名
초56	地膚子/지부자	(땀싸리)	대싸리
초57	景天/경천	(굉의비름, 돌나물)	집우디기
초58	茵陳蒿/인진호	(더위지기, 사철쑥)	더위지기
초59	王不留行/왕불류행	(장구채)	당고채
초60	白蒿/백호	(다복쑥)	곤날제흰쑥
초61	葇耳/사이	(도꼬마리)	돌고마리
초62	葛/갈	(참)	츄
초63	瓜瓞根/과루근	(하늘타리)	하늘타리
초64	苦參/고삼	(쓴너삼, 도독놈의 지팡이)	쓴너삼
초65	當歸/당귀	(승검초)	승검초
초66	麻黃/마황	(마황)	
초67	通草/통초	(으름덩굴)	으흐름너출
초68	芍藥/작약	(함박꽃)	함박꽃
초69	蠶/여	(타래뽕꽃)	뽕꽃
초70	瞿麥/구맥	(패랭이꽃)	석득화
초71	玄參/현삼	(현삼)	
초72	秦艽/진교	(망초)	망초
초73	百合/백합	(개나리)	개나리
초74	知母/지모	(지모)	
초75	貝母/패모	(패모)	
초76	白芷/백지	(구리때)	구리대
초77	淫羊藿/음양곽	(삼지구엽초)	삼지구엽플
초78	黃芩/황금	(속썩은풀)	속서근플
초79	狗脊/구척	(고비)	
초80	茅/모	(띠)	뽀
초81	紫菀/자완	(탱알)	팅알
초82	紫草/자초	(지치)	지최
초83	前胡/전호	(사양채)	사양치
초84	敗醬/패장	(마타리)	
초85	白鮮/백선	(검화)	검화
초86	酸漿/산장	(파리)	쏘아리
초87	藁本/고본	(고본)	
초88	石韋/석위	(석위)	
초89	瓦韋/와위	(와위)	
초90	葇蘆/비해	(멸애)	멸애
초91	白薇/백미	(아마존)	아마존
초92	大靑/대청	(당청화)	
초93	艾葉/애엽	(약쑥잎)	스지발쑥
초94	惡蕒/악실	(우영)	우영
초95	水萍/수평	(수평)	

	품명	현대 이름	鄉名
초96	浮萍/부평	(개구리밥)	머구리밥
초97	王瓜/왕과	(쥐참외)	쥐참외
초98	地榆/지유	(외나무, 수박풀)	외나무
초99	大薊/대계	(영경귀)	항가시
초100	小薊/소계	(조방가새)	조방가시
초101	澤蘭/택란	(택란)	
초102	防己/방기	(방기)	
초103	天麻/천마	(수자해쫄)	수자해쫄
초104	阿魏/아위	(아위)	
초105	高良薑/고량강	(양강)	
초106	百部/백부	(파부초)	
초107	茴香/회향	(회향풀)	
초108	款冬花/관동화	(관동화)	
초109	紅藍花/홍람화	(잇꽃)	닛
초110	臙脂/연지	(연지)	
초111	牡丹/목단	(모란)	모란
초112	三稜/삼릉	(매자기)	미자기
초113	薑黃/강황	(강황)	
초114	華撥/필발	(필발)	
초115	羅摩子/나마자	(새박덩굴)	새박
초116	鬱金/울금	(심황)	심황
초117	盧薈/노회	(알로에)	
초118	玄胡索/현호색	(현호색)	
초119	肉豆蔻/육두구	(육두구)	
초120	補骨脂/보골지	(파고지)	
초121	零陵香/영릉향	(혜초)	
초122	縮砂蜜/축사밀	(사인)	
초123	蓬莪朮/봉이술	(봉출)	
초124	紅草/홍초	(불경이)	뇨화
초125	莎草/사초	(항부자)	항부즈
초126	胡黃連/호황련	(호황련)	
초127	紅豆蔻/홍두구	(홍두구)	
초128	甘松香/감송향	(감송향)	
초129	垣衣/원의	(담 위의 이끼)	담우희잇기
초130	地衣/지의	(땅에 낀 이끼)	사해씨인잇기
초131	井中苔/정중태	(우물 속의 이끼)	
초132	屋遊/옥유	(옥유)	
초133	鱧腸/예장	(한련초)	한련초
초134	茅香花/모향화	(흰띠꽃)	흰띠꽃
초135	使君子/사군자	(사군자)	

	품명	현대 이름	郷名
초136	白豆蔻/백두구	(백두구)	
초137	附子/부자	(바곳)	
초138	烏頭/오두	(오두)	
초139	天雄/천웅	(천웅)	
초140	半夏/반하	(끼무릇)	식물웃
초141	大黃/대황	(장군풀)	장군풀
초142	葶藶子/정력자	(두루미냉이)	두르미나이
초143	萹蓄子/낭탕자	(미치광이)	초우윙
초144	草蒿/초호	(제비쑥)	저비쑥
초145	旋覆花/선복화	(하국꽃)	하국
초146	藜蘆/여로	(박새)	박새
초147	射干/사간	(범부채)	범부채
초148	蛇含/사함	(뱀허)	뱀야미허
초149	常山/상산	(조팝나무)	조팝나무
초150	甘遂/감수	(감수)	
초151	白斂/백렴	(가위툼)	가희툼
초152	赤斂/적렴	(빨간가위툼)	
초153	白芨/백급	(대왓풀)	대왓풀
초154	大戟/대극	(버들웃)	버들웃
초155	澤漆/택칠	(버들웃쌩)	
초156	貫衆/관중	(회초미)	회초미
초157	狼牙/낭아	(낭아초)	낭아초
초158	羊躑躅/양적촉	(철쭉꽃)	턱 툽곳
초159	商陸/상륙	(자리공)	자리공
초160	青箱子/청상자	(맨드라미)	만드라미
초161	威靈仙/위령선	(으아리, 수취나무)	술취나무
초162	牽牛子/견우자	(나팔꽃)	
초163	葶麻子/비마자	(아주까리)	아쫏가리
초164	蒴藿/삭조	(말오줌나무)	말오줌나무
초165	天南星/천남성	(두여머조자기)	두여머조자기
초166	鬼臼/귀구	(귀구)	
초167	羊蹄/양제	(소루쟁이)	
초168	酸模/산모	(승아)	승아
초169	菰根/고근	(줄)	
초170	蕭蓄/편축	(온마답)	온마답
초171	狼毒/낭독	(오독도기)	오독뽕기
초172	葶藶/희렴	(진득찰)	흙희찰, 진득찰
초173	苧根/저근	(모시풀)	모시
초174	馬鞭草/마편초	(마편초)	
초175	何首烏/하수오	(새박뿌리, 온조롱)	江原道名온조롱, 黃海道名새박

	품명	현대 이름	鄉名
초176	白頭翁/백두옹	(할미꽃)	주지꽃, 又云할미십가비
초177	芭蕉/파초	(파초)	반초
초178	蘆/노근	(갈대)	줄
초179	馬兜鈴/마두령	(쥐방울)	쥐방울
초180	劉寄奴草/유기노초	(유기노초)	
초181	骨碎補/골쇄보	(넉줄고사리)	
초182	連翹/연교	(개나리)	어어리나모
초183	續隨子/속수자	(연보)	
초184	蘭茹/여여	(여여)	
초185	蛇莓/사매	(뱀딸기)	뱀얌딸기
초186	葎草/울초	(한삼덩굴)	한삼
초187	鶴虱/학슬	(여우오줌풀)	여의오줌
초188	雀麥/작맥	(귀리)	귀보리
초189	白附子/백부자	(흰비꽃)	흰비꽃
초190	葫蘆巴/호로파	(호로파)	
초191	木賊/목적	(속새)	속새
초192	蒲公英/포공초	(민들레)	안준방이, 又名므음드레
초193	穀精草/곡정초	(고위까람)	고윗가람
초194	酢漿草/초장초	(괴승아, 팽이밥)	괴승아
초195	昨葉荷草/작엽하초	(지부지기)	짐우디기
초196	夏枯草/하고초	(제비꽃)	저비꽃
초197	山茨菰/산자고	(까치무릇)	가치무릇
초198	燈心草/등심초	(골풀, 골숙)	골숙
초199	馬勃/마발	(말불버섯)	말불버섯
초200	水蓼/수료	(물여뀌)	물여뀌
초201	董草/흰초근	(원추리)	원추리, 又名넙느 몰
초202	野茨菰/야자고	(무릇)	물무
초203	敗天公/패천공	(오래 쓴 패랭이)	오래쓰던패랭이
초204	草豆蔻/초두구	(초두구)	
초205	草果/초과	(초과)	
초206	虎杖/호장	(감제)	감제
초207	草烏/초오	(바곳)	바곳
초208	佛耳草/불이초	(떡쑥)	
초209	菡實/경실	(어저귀)	어저귀
초210	鳳仙花/봉선화	(봉선화)	봉선화
초211	孩兒茶/해아다	(해아다)	
초212	屐屨鼻繩/극십비승	(나막신 앞코)	평격지압코

표14-『동의보감』 탕액편 제14 木部(범 158항, 木類 102종)

	품명	현대 이름	鄉名
목1	桂皮/계피	(육계나무)	
목2	松/송	(송)	소나무
목3	槐/괴	(회화나무)	회화나무
목4	枸杞子/구기자	(괴쫂나무)	괴쫂나무
목5	栢/백	(촉백나무)	촉백나무
목6	茯苓/복령	(복령)	
목7	茯神/복신	(복신)	
목8	琥珀/호박	(호박)	
목9	榆/유	(느릅나무)	느릅나무
목10	酸棗/산조	(멧대추)	멧대추
목11	黃蘗/황벽	(황벽나무)	황벽나무
목12	楮/저	(닥나무)	닥나무
목13	漆/칠	(웃)	웃
목14	五加皮/오가피	(땅두릅)	삿두릅
목15	蔓荊實/만형실	(승법실)	승법실
목16	辛夷/신이	(자목련, 붓꽃)	붓꽃
목17	桑上寄生/상상기생	(뽕나무겨우살이)	뽕나무모희겨우살리
목18	桑/상	(뽕나무)	뽕나무
목19	桑蠶蟲/상두충	(뽕나무좀벌레)	
목20	柘木/자목	(산뽕나무)	뽕새
목21	箠竹/근죽	(왕대)	왕대
목22	淡竹/담죽	(솜대)	소솜대
목23	苦竹/고죽	(오죽)	오죽
목24	竹/죽	(대)	
목25	吳茱萸/오수유	(오수유열매)	
목26	食茱萸/식수유	(수유나무열매)	수유나무열매
목27	山茱萸/산수유	(산수유열매)	
목28	杜仲/두충	(두충나무)	
목29	蕪核/유흥	(유인)	
목30	丁香/정향	(정향나무의 미개한 화회)	
목31	鷄舌香/계설향	(대마른 계향꽃봉오리)	
목32	沈香/침향	(침향나무)	
목33	乳香/유향	(유향나무)	
목34	白膠香/백교향	(단풍나무)	
목35	藿香/곽향	(곽향나무)	
목36	白檀香/백단향	(백단나무)	
목37	紫檀香/자단향	(향나무)	
목38	降眞香/강진향	(강진향나무)	

	품명	현대 이름	郷名
목39	蘇合香/소합향	(소합향나무)	
목40	金櫻子/금앵자	(금앵자)	
목41	檳榔/빈랑	(빈랑나무)	
목42	梔子/치자	(지지, 치자나무)	지지
목43	龍腦香/용뇌향	(훈향, 용뇌향)	
목44	樟腦/장뇌	(녹나무)	
목45	蕪荑/무이	(느릅나무)	느릅나무
목46	枳實/지실	(탱자)	팅즈
목47	厚朴/후박	(후박나무)	
목48	苦茶/고다	(작설차)	작설차
목49	秦皮/진피	(물푸레나무)	무프렛겅질
목50	蜀椒/촉초	(조피나무)	초피나무
목51	椒/초	(천초)	천초
목52	秦椒/진초	(분지)	분디여름, 又云는되
목53	紫葳/자위	(금등화)	금등화
목54	胡桐淚/호동루	(아라보진)	
목55	松烟/송연	(송연)	송연
목56	猪苓/저령	(저령)	
목57	白棘/백극	(대추나무가시)	
목58	烏藥/오약	(천태오약)	
목59	沒藥/몰약	(몰약)	
목60	安息香/안식향	(붉나무)	붉나무
목61	松蘿/송라	(소나무겨우살이)	소나무우척송낙
목62	衛矛/위모	(화살나무)	벽딴회
목63	海桐/해동	(엄나무)	엄나무
목64	合歡/합환	(자귀나무)	자귀나무
목65	五倍子/오배자	(붉나무)	붉나무
목66	天竺黃/천축황	(참대속진)	
목67	密蒙花/밀몽화	(밀몽수꽃)	
목68	巴豆/파두	(파두씨)	
목69	皂莢/조협	(주엽나무)	주엽나무
목70	鬼皂莢/귀조협	(귀조협)	
목71	訶子/가자	(가리특)	
목72	柳花/유화	(버들개지)	버들개지
목73	赤檉/적정	(붉은 갯버들)	
목74	練實/연실	(연밥)	
목75	樗/저	(가죽나무)	가죽나무
목76	椿木/춘목	(춘나무)	
목77	郁李/옥리	(산앵도나무)	릿이스랏삐, 又名산미즈
목78	沒食子/몰식자	(몰식자)	

	품명	현대 이름	鄉名
목79	雷丸/뇌환	(뇌환균의 균핵)	
목80	橡實/상실	(도토리)	굴근도토리
목81	櫟樹/역수	(떡갈나무)	떡갈나무
목82	榭若/곡약	(조리참나무)	조리참나무
목83	白楊樹/백양수	(사시나무)	사스나무
목84	蘇方木/소방목	(다목)	다목
목85	桐/동	(오동나무)	미귀나무
목86	胡椒/호초	(후추)	
목87	華澄茄/필징가	(필징가)	
목88	無患子/무환자	(모감주나무)	모관주나무
목89	益智子/익지자	(익지)	
목90	牛李子/우리자	(우리나무)	
목91	丁公藤/정공등	(마가목)	마가목
목92	樺木皮/화목피	(벗나무)	벗
목93	木鼈子/목별자	(목별나무)	
목94	釣藤/조등	(조구등가시)	
목95	棕櫚/종려	(종려나무)	
목96	木槿/목근	(무궁화)	무궁화
목97	芫花/원화	(팔꽃나무꽃)	
목98	楸木/추목	(가래나무)	가래나무
목99	石南/석남	(만병초)	
목100	大風子/대풍자	(대풍자)	
목101	血竭/혈갈	(기린나무)	
목102	白蠟/백랍	(물푸레나무)	물푸레나무

참 고 문 헌

『춘정집』, 『동문선』, 『청장관전서』, 『홍재전서』, 『오주연문장전산고』, 『기축체의』, 『동사만록』.

高明 註釋, 『大戴禮記今註今譯』. 臺灣 商務印書館, 1993年 修訂版.

陳奇猷 校釋, 『呂氏春秋校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王育杰 整理, 『本草綱目』上中下. 金陵版排印本 제2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권건혁 편, 『편집동의보감』. 도서출판반룡, 2005. 8.

김일권,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2007.

_____, 「사신도 형식의 성립과정과 한대의 천문성수도 고찰」. 『고구려연구』 11집, 2001.7.

_____, 「전통시대 생태학 자료기반과 자연학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국생태학회, 〈전통생태연구의 현황과 전망〉, 2013.11.22.

_____, 「조선시대 기상점후 류서류와 기상자연학적 고찰」. 『중앙사론』 제38집, 중앙대 중앙사학연구소, 2013.12.

_____, 「조선시대 민속문화 관련 류서류 편찬물 현황과 특성」. 『역사민속학』 제32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3.

_____, 「조선시대 飲食門 류서류와 음식생태학」. 『김치와 김장문화의 인문학적 이해』, 세계김치연구소, 2013.12.

서강태, 「동의보감 탕액편에 수록된 본초의 분류」.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안대회,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조선 후기 물명고증학의 전통」. 『진단학보』 98호, 2004.

이경우, 「동의보감 탕액편에 수록된 本草에 관한 식물분류학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이현우, 「생물자원 전통지식 관련 국내 정책대응 현황」. 한국생태학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동심포지엄, 〈전통생태 연구의 현황과 전망〉 발표집, 2013.11.

국 문 요약

본 연구는 우리 역사의 생물지식 관련 문헌 범주의 개발과 거기에 담긴 전통생물 분류체계를 개괄하여 고찰하면서, 우리 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와 전통생물지식 기반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생물지식 연구는 역사학과 생물학, 곧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학제간 융합연구를 필요로 하는 복합분야이며, 그 자료 형태가 한문으로 씌어진 고문헌 기반이어서 적어도 조선시대 박물학 내지 문물학 상황에 대한 안목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 분야의 국내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관계로 본고에서는 여러 한계를 다루면서 전통생물학의 지식체계 골간을 이루는 생물분류학 측면에 대한 시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우선 생물은 근대화문적 용어여서 그에 관한 전통시대 용례를 고찰한 결과, 생물이라는 말보다 군생(群生), 조수(鳥獸), 금수(禽獸), 충어(蟲魚) 등으로 불렸고, 정조가 동물과 식물을 언급한 점이 인상적이거나 대개는 식물보다는 초목(草木)이란 말을 선호하였다.

다음 조선시대에 생성된 문헌 100여 종을 검토하면서 생물지식을 수록한 문헌을 특정하였는데, 장르별로는 문물백과전서 성격의 류서류 문헌과 의약학적 본초류 문헌 및 농사 보급을 위한 농서류 문헌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설명과 다양한 동식물종을 다루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 전기 『고금설원』과 조선 중기 『동의보감』·『지봉유설』·『유원총보』·『색경』 등, 조선 후기는 『산림경제』·『농정본사』·『임원경제지』·『오주연문장전산고』 등 16종 문헌이 주목되었다.

이들 전체를 짧은 논문에서 다 다룰 수 없기에 3대 문헌 범주별로 하나씩 살펴보았다. 류서류 문헌인 『유원총보』는 식물을 「미곡문」과 「초목문」으로, 동물은 「조수문」과 「충어문」으로 분류하여 다루었다. 다음 본초류 문헌인 『동의보감』은 식물은 「곡부」·「과부」·「채부」·「초부」·「목부」의 5부 분류에 447종으로, 동물은 「금부」·「수부」·「어부」·「충부」의 4부 분류에 197종으로 수록하였다. 가장 체계적인 분류와 목록을 수록한 농서류 문헌의 『농정본사』는 식물의 경우 곡류·채류·과류·초류·목류의 5류 분장에 828종을 다루었고, 동물은 금류·수류·어류·충류의 4류 방식에 197종을 수록하였다.

앞으로 이들 문헌의 정밀한 전통생물 분류체계 연구를 심화하고, 그 외 물명고류 등 새로운 장르의 문헌류 개발로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크다.

투고일 2014. 12. 23.

심사일 2015. 2. 5.

게재 확정일 2015. 2. 10.

주제어(keyword) 전통생물 분류체계(tradition taxonomy of organism), 류서류 문헌 (premodern encyclopedic literatures), 농서류 문헌(old agriculture literatures), 본초류 문헌 (medical herb literatures), 『동의보감』(*Tongwi-bogam*), 『농정전서』(*Nongjung-junseo*), 서명응(Seo, Myung-oung)

Abstracts

A Study of Traditional Organism Classification and its Literature

Materials

Kim, Il-gwon

At present, all countries of the world compete for resource hegemony of securing biological tradition knowledge. I studied for development of old literature category about Korean traditional biological knowledge in this paper. This is the purpose for securing our sovereignty over biological resources and for improving the base of traditional biological knowledge. This needs interdisciplinary research between the humanities and natural sciences, in other words, between history and biology.

To begin with, I traced a word to its origin and usage of modern biology in old Korean literatures. As a result, old Koreans used usually a herb & tree and birds & animals instead of plant and animal organism. I also researched widely over old 100 literatures related biological knowledge in the Choseon dynasty. There are three categories related biological literature: first, traditional premodern encyclopedia books part, second, old agriculture books part and third books of medical herbs part. I developed about 16 old literatures as more directly related biological knowledge. I also analyzed a tradition classification method and the taxonomy system about plant and animal organism through several old books containing biological knowledges, for example, old encyclopedic *Yuwon-chongbo*, medical herb *Tongwi-bogam* and agricultural book of *Nongjung-junseo*.

From now on, it is positively necessary to improve our research of traditional biology classification, including development for new other biological literature materials.